

2015 인천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

Inche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MICE Career Fair 2015

2015. 9. 11 (금)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2015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9. 9(수)~12(토),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동시개최

참가대상 및 규모

참가대상

국제기구 및 MICE 분야 직종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기관(40부스)

- 인천 및 국내 소재 국제기구(기관)
- MICE유관기관 및 기업
(호텔, PCO, MICE서비스, 교육기관 등)

사전등록신청

인천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app/event-13



주요 프로그램

1) 국제기구-MICE 진출설명회(10:00~12:40)

- 국제기구 및 MICE전문가 기조강연 / 국제기구 진출사례발표 / 글로벌 MICE 아카데미
- 사전등록자(선착순 300명)

2) 진로·채용상담 및 홍보부스 운영(10:00~17:00)

- 국제기구, MICE기관의 진로·채용정보 제공, 각 기관의 활동 홍보
- 사전 및 현장등록자

3) 국제기구 방문 및 MICE 테마관광(14:00~17:00)

- 국제기구 방문체험의 기회 및 주요 MICE관광코스 방문
- 사전등록자(선착순 30명)



www.incheon.go.kr



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 & Event)의 약칭

주최 | 주관 인천광역시 인천컨벤션뷰로

문의 | 인천컨벤션뷰로 Tel. 032)210-1055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5 | 09

인천광역시



굿모닝 2015 09
인천
Good Morning
INCHEON

돌의 얼굴

장석남

어느 하루 홍예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만 개의 돌을 쌓아 만든 홍예문 아래를 지나다가
그 많은 돌의 얼굴들 중에서 나는 한가지 얼굴과 눈이 맞고 말았습니다
아주 가늘은 햇살로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그 가늘은 숨결 하나가
내 이마를 뚫고 들어와 가슴을 타고
발끝으로 새어 내려갔습니다

이 홍예문이 선 게 백 년 남짓이니까
그 돌이 그 자리에서 그 눈빛을 쏟아낸 게 그만한 세월일 것인데
여전히 그 빛 생생하게 내 몸 속에 다가 그 긴 세월의 그리움 치레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내 걸음은 그 자릴 지키지 못했지만
나는 그 돌로 걸어들어가듯 어딘가로 걸어들어가서
홍예문 아래를 지나가는 색시들이나 옷깃이 서걱이는 새아이들
손 시리게 피어있는 이른 봄꽃들을 바라보듯 앞바다를 바라보고 또 보곤 하였습니다
집에 와서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지나 다시 그 자릴 지나다가 그 돌을 보았더니
웬일로 거기엔 온통 신 사탕을 가득 문 봄바다의 얼굴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에 그 바다로 누가 걸어들어간 걸까요
걸어나온 걸까요
나는 홍예문을 지나면서
그 돌 틈에 난 담쟁이덩굴이나 쑥부쟁이인지 뭔지 하는 풀에 내 눈빛을 걸어두고야
그곳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장석남 시인

65년 인천에서 출생
8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새떼들에게로의 망명〉 〈고요는 도망가지 말아라〉 등
김수영문학상, 현대문학상, 미당문학상 등 수상
현재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이 전자책으로도 서비스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서점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바로북, 북큐브, 예스24 등에서 굿모닝인천 전자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추석 특집 한옥 호텔 경원재 앰배서더	06
포커스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12
주목, 인천의 책 점자 인천석금	16
니하오 유커 Old&New	18
인천의 섬 문갑도	26
인천 가치 재창조 동인천이야기	32
내 길 내 일 '바람의 심장' 펴낸 시인 박일	38
까치발로 본 인천 ㉠ 인천역 부근 철로변 → 송월동	40
CULTURE INFO	44
NEWS BRIEF	48
COUNCIL NEWS	52
INFO BOX	54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야'	57
모닝 커피 한잔 김학균 시인	58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5년 9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우승봉(대변인) 편집장 유동현 (홍보콘텐츠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보섭·김성환·김상덕 (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디자인 ㈜씨에디터 인쇄 ㈜보현토탈프린팅

CONTENTS 2015. 09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61



COVER STORY

경원재는 송도국제도시 송도센트럴공원 한가운데 자리 잡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한옥 호텔입니다. 마천루 사이에 내려앉은 고전적인 풍경은 다른 세상인 듯 이질적이면서도 조화롭습니다. 바람 솔솔 부는 경원재 대청마루에 누워 하늘을 봅니다. 겹겹이 쌓인 기와지붕 위로 초가을의 다사로운 햇살이 떨어집니다. 우리 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추석(秋夕) 연휴, 경원재에서 삶의 여백을 그려봅니다.

소통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세상과 통하는 또 다른 문’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소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인천 날씨 ‘쾌청’

시민께서 인천시 종합민원센터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과 그 답변을 모았습니다.

인천 날씨는 언제나 ‘쾌청’.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미추홀콜센터 이용 안내 앱 ‘120 인천’, SNS @120incheon,
전화 및 문자 032-120, 팩스 032-440-0400

**서구 경서동 입구 버스 정류장 앞,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불편합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하수구 하나만
들어 주면 될 텐데요,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관련 민원은 서구청 대표번호 562-5301로 문의하시거나, 서구청 홈
페이지(www.seo.incheon.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민원상담(구정에 바란다) → 새홀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바가 원활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45번 버스 출발점 기준 막차 시간을 알려 주세요.

↳ 반갑습니다. 45번 버스는 출발점인 월미도와 종점 신복사거리에서 모두 오후 11시에 막차가 출발합
니다. 다만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막차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랍
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여권 신규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여권 발급 처리 기간은 신원조회(경찰청 업무)에서 이상이 없을 경
우, 접수일 포함 3일 째 오후 2시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수령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여권 발급 마감 시간 20
분 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수구 부수지공원 물놀이장 이용 날짜와 시간을 알고 싶어요.

↳ 부수지공원 운영 날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장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50분 운영, 10분 휴식)입니다. 월요일
은 소독과 청소, 시설 점검 보수를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ou)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ilyic)
블로그(incheonblog.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카카오토리(story.kakao.com/ch/incheoncity)

그건 이렇습니다

언론에 게재된 잘못된 사실을 정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8월 7일자 언론에 보도된 ‘인천 도서주민 여객선 운임 정부 국비지원 비율 높여야’에 대
한 해명자료입니다.

보도된 내용 중 해명할 부분

- 시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정부가 당초 협약보다 여객선
운임을 적게 지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요청했다.
- 한편, 이날 기재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는 안상수(새누리·인천 서구청화을) 국회의원이 동행
했다.

해명 내용

- 8월 6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방문 시 ‘인천 도서주민 여객선운임 지원’ 사업은 건의되
지 않은 사업임.
- 아울러 이날 기획재정부 2차관과의 면담은 안상수 의원실에서 사전에 일정을 계획한 것이며,
이에 시 관계자가 동행했던 사항임.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독자 최진영(58·전북 군산시)

고향 사람처럼 반가운 <굿모닝인천>

우리 가족은 지금 인천과 멀리 떨어진 전북 군산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인천에 있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 인천 계양구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
이좋은 부부가 두 딸을 낳아 키우며 오순도순 살던 아름답던 시절이었습니다. 당
시 집 가까이에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는데, 온 가족이 그 별판 나무 그늘 아래서
쉬었다 오기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월미도, 연안부두 등으로 나들이 갔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인천에서 20여 년을 보내고, 10년 전 남편의 회사가 이전하면
서 군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몸은 떠났지만 우리 가족은 늘 인천을 그리
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딸이 친구들과 인천으로 놀러 갔다가 인천역사자료
관에서 <굿모닝인천>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정기 구독하였습니다. 마치 고향 사람
을 만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인천은 제게 제2의 고향과 다름없습니다. <굿모닝인천
>을 통해 그리운 인천의 진솔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앞으
로도 책을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속의 도시로 발전하는 인천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 좋겠습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 goodmorning.incheo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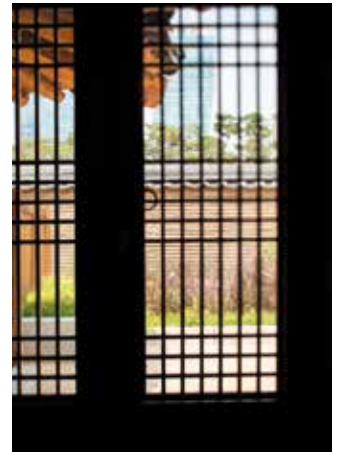
경원재, 빌딩 숲 사이 풍경 소리 흐르다

경원재에서 머문 하루. 겹겹이 쌓인 기와지붕 위로 초가을의 다사로운 햇살이 떨어진다. 처마 밑 풍경(風聲) 소리가 조용히 귓가를 두드린다. 문을 열 때마다 하나씩 새롭게 그려지는 여백의 공간. 그 안을 청신한 가을 공기와 햇살, 바람이 자유로이 드나든다. 우리 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추석(秋夕) 연휴, 경원재 대청마루에 누워 긴긴 오수에 빠져도 좋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명장의 손길 스민, 도심의 한옥 호텔

분주함이 넘치는 도시 한가운데 더디고 정묵한 옛 풍경이 오롯하다.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은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이 흠뻑 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한옥 호텔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소유하고 글로벌 호텔 체인 앰배서더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경원재는 송도국제도시의 송도센트럴공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날렵하게 솟아오른 마천루 사이에 내려앉은 고전적인 풍경은 이질적이면서도 조화롭다.

‘경원’은 고려시대 인천의 이름으로, ‘경사를 불러오는 고을’을 뜻한다. 이 호텔은 ‘한반도의 시간을 산책하다’를 콘셉트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건축양식에 따라 전통 한옥의 멋을 살려 지었다. 시대와 변화를 거슬러 지은 건축물은 견고하고 아름답다.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자연의 이치가 담겨 있다. 거기 깊숙이 대한민국 명장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스며있다. 전체 목공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 유산으로 등재된 최기영 대목장이 맡아 전통 한옥의 미를 재현했다. 옷칠은 김성호 명장이 맡아 세월이 흐를수록 깊이를 더할 색감을 입혔다. 기와 잇기는 우리나라 유일의 변와장 이근복 선생이 기품 있고 우아한 곡선미를 살려 완성했다.

경원재의 조달 총지배인이 그때의 시간을 기억한다. “나무 하나를 깎고 기둥 하나를 올리는 데,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며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경원재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이 년여가 걸렸습니다.” 지난해 호텔 개장을 앞두고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

로비에 있는 정수화 장인의 자개 작품



경원루 배흘림기둥. 나무 향이 깊고 진하다.

기 전까지 기와를 전부 올려야 했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목수들이 모여 장마 비를 뚫고 작업하는 진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시간이 지금의 경원재를 있게 했다.

고려와 조선의 시간을 품다

경원재 정문으로 들어서면, 먼저 하늘로 기세 등등 솟은 ‘경원루’로 시선이 머문다. 2층 높이로 지은 누각 형식의 건물로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연회장으로 쓰인다. 경원루는 고려시대 가장 화려했던 건축기법인 주심포 양식을 따라 지었다. 전체적인 외관은 조선시대의 경회루를, 세세한 양식은 부석사 무량수전을 모티브로 했다.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송도센트럴공원과 그 너머 송도국제도시를 내려다본다. ‘달빛이 노니는 공간’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밤에 바라보는 경치가 특히 아름답다. 하나둘 피어오르다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이 한 폭의 그림으로 곱게 피어난다.

경원루에서 회랑을 건너 호텔 객실들을 품은 경원재에 다다른다. 시간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원재는 로열 스위트를 비롯해 모두 30실로 이뤄져 있다. 건축물은 조선시대의 양식을 따라 소박하고 고졸한 멋이 흐른다. 중첩된 기와 지붕과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민흘림기둥에서 절제의 미가 흐른다. 그 시대 사대부의 집처럼 꾸미지 않은 듯 수수하면서도 기품이 넘친다.

느림, 비움, 사색의 공간

경원재가 일반 호텔과 확연히 다른 점은 공간적 개방감이다. 센트럴공원 산책로에서 담장과 회랑, 마당, 한옥으로 동선이 길게 이어지며 한껏 여유 있는 공간이 펼쳐진다. 외편으로 꾸며진 담장을 따라 들어온 길은 앞마당, 바깥마당, 안마당, 대청을 건너 후원까지 이어진다. 발밑으로 밟히는 폭신한 흙의 감촉이 시간이 쌓인 옛 마을의 정취를 자아낸다.

객실에도 소통하고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서까래를 높이 올린 천장이 거실과 방을 아우르며 공간과 공간,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잇는다. 그러면서 문을 열 때마다 하나씩 새로운 공간이 펼쳐진다. 세살 무늬 창살 틈으로 옆 객실의 기와가 보이고 그 너머로 또 다른 기와가 중첩된다. 그 아래 마당에 피어난 꽃과 나무가 유난히 곱고 푸르다. 이런 집 짓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경원재는 한국적인 멋과 아름다움, 편리함 그 어느 하나 놓치지 않는다. 건축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한껏 살리되 편리한 현대적인 기능을 담았다. 단열과 방수 등 곳곳의 요소에 현대 건축의 방식을 적용해 일반 호텔에 머무는 것처럼 편안하다. 객실마다 집사를 지정해 머무는 내내 세심히 배려하는 건, 일반 호텔의 서비스 그 이상이다.



송도센트럴공원 품에 안긴 경원재

삶의 기억에 머무름, 한국의 美

경원재는 우리나라에 네 번째로 문을 연 한옥 호텔이지만, 호텔 체인에서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옥이 단층 구조라 수지 균형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원재를 짓는 데만 500억 원이 들어갔다. 오로지 사업성을 위해서라면 굳이 그 큰돈을 들여 호텔을 지을 이유가 없었다. 이에 대해 조 지배인은 경원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있다고 말한다.

“경원재에 있으면, 가끔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한옥에 처음 와본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나라 안팎의 고객들이 경원재에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길 바랍니다. 이 안에서 삶의 여유를 찾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종이 바른 창으로 스미는 빛에 눈 뜨고, 고른 한낮 바람 솔솔 부는 대청마루에 머물다, 여백이 흐르는 마당을 거닌다. 그러다 밤이 깊어 가면 온기 훈훈한 구들장에 등을 대고 잠자리에 든다. 한국의 아름다움이 흐르는 경원재의 하루, 그날 밤 잠은 깊고 달다.



307호가 아닌 '지수정'. 객실마다 이름이 있고 이야기가 담겼다.



객실 고풍이 흐르는 경원재에는 스위트룸을 비롯해 객실이 모두 30개 있다. 대한민국 명장들의 숨결이 달아 있는 옛집에서 몸과 마음을 누이고 잠시 쉬었다 가자. 단 두 채밖에 없는 독채 형식의 로열 스위트는 비밀스러운 안식처다. 서까래와 대들보가 보이는 천장이 평온함을 주고, 나무가 자라고 흙이 깔린 넓은 마당이 자연의 기운을 불어넣는다. 솔솔 바람 부는 대청마루에 누우면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른다. 디렉스룸은 더블, 누마루, 온돌, 스위트로 이뤄져 있다. 전통 문살을 주조로 하고 수목화 벽지가 펼쳐져 있어 분위기가 그윽하다.

예약 및 문의 729-1101, E-mail gwjrsvn@ambatel.com



연회장 고려시대 주심포 방식으로 지은 누각 경원루는 각종 콘퍼런스 및 기업 행사, 결혼식 등 다양한 행사를 여는 연회장이다. 단순히 연회를 여는 공간이 아닌, 한국인에게는 한국 건축에 대한 자긍심을, 외국인에게는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경원재를 병풍처럼 두른 영빈마당은 최대 500명까지 수용하는 넓은 야외 홀이다. 격조 높은 국제 회의와 세미나, 비즈니스 미팅, 예와 정성을 담은 전통예식에 완벽하게 어울린다.

예약 및 문의 729-1111, E-mail gwjbqrsvn@ambatel.com

경원재 둘러보기



레스토랑&바 '수라'는 정갈하고 단아한 분위기의 한식당이다. 화려한 궁중 요리와 인천 본연의 맛을 품은 로컬 푸드가 한 상 가득 차려진다. 라운지 '다향'은 한국 전통차와 음료, 주류를 선보인다. 한옥의 은근한 정취 속에서 차 한 잔 마시며 풍류를 즐겨 본다. 소중한 사람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덧 몸과 마음이 넉넉히 채워진다.

예약 및 문의 729-1113



산책길 경원재는 그림의 공간인 길, 비움의 공간인 마당, 사색의 공간인 후원을 품고 있다. 앞으로 탁 트인 다섯 마당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마당에 있는 연못을 지나 담장에 두른 나무들을 따라 걸으면, 100여 년 된 팽나무와 매화나무가 자라는 숲길에 다다른다. 혼자 조용히 사색을 즐겨도 좋고, 좋은 이와 담소를 나누며 걸어도 즐겁다.

체크 리스트 경원재 웹사이트(www.gyeongwonjae.co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객실 5% 할인과 적립 혜택이 있다. 조식을 포함한 패키지화 한식당 '수라' 프로모션 등 실속 있는 상품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또 경원재에서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한복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장인의 손길이 닿은 호텔의 명소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호텔과 이어진 송도센트럴공원에서 유유히 산책하거나 수상 택시와 수상 레저 등을 즐길 수 있다.

위치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200번지

가는 길 내비게이션으로 '경원재 앰배서더' 나 주소 입력. 지하철은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 4번 출구로 나와 걸어서 3분 거리. 버스는 M6405, 1301, 6, 6-1, 8, 780, 91번을 이용.

예약 및 문의 729-1101, E-mail gwjrsvn@ambatel.com

2015 대한민국독서대전

‘책 세상’ 인천에서 펼쳐진다

청명한 하늘,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면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게 된다. 9월은 어떤 것을 해도 즐거움이 배가된다. 특히 마음의 양식을 쌓는 독서는 이 계절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책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는 전국 규모의 축제가 인천에서 열린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15 대한민국독서대전’은 전 국민이 책을 읽고 함께하는 데 행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행사를 통해 인천은 문화의 품격이 생활 속에 녹아 있는 도시로 한 계단 더 높이 올라서게 된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류재형 자유사진가

9월 18일 전국 최대 책 축제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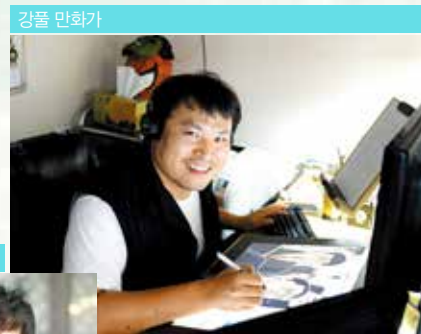
‘2015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막식은 9월 18일 18시부터 20시까지 종합문화예술회관 특설무대에서 막을 올린다. 이 자리는 독서대전을 축하하는 공연, 개막 선언, 독서문화상, 북 트레일러 시상, 책 읽는 마을 선포 등의 행사가 마련되어 전국 최대 규모의 책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유명 작가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가 3일간 열린다. ‘두근두근 인천산책’의 이하람 여행작가, ‘리딩으로 리드하라’로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오른 이지성 작가, ‘순정만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강풀 만화가가 초청되어 시민과의 소통 시간,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18일부터 20일까지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인천 작가와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9월 20일 10시부터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에서 인천 출신이거나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초대한다. 소설가 양진채,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경림, 수필가 김모진, 아동문학가 이성률 씨가 참여한다. 작가들의 삶과 창작활동, 인천에 대한 애정 등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놓을 예정이다.



이하람 여행작가



강풀 만화가



이지성 작가

작가들 참여 ‘인천재발견’ 집담회 열려

범국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학술대회도 열린다. 학술콘퍼런스는 9월 18일(금) 13시30분부터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범국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퍼런스’라는 제목으로 개최된다.

인천문화재단에서 출간한 문화의 길 총서시리즈에 참여한 작가들의 ‘인천재발견 집담회’도 열린다. 생활근거지로서 인천 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재조명한다. 9월 18일 오후 4시에 시작한다. ‘파시’ 강제운, ‘철도’ 조성면, ‘노래’ 나도원, ‘다방’ 김윤식, ‘공장’ 정운수, ‘야구’ 김은식, ‘오래된 가게’ 정진오 작가가 참여한다.

중학생 독서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한 독서토론회도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9월 20일 오후 1시부터 선정 도서를 놓고 각 학교 독서동아리별 토론이 이뤄지고,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청소년들의 독서토론 능력을 높이고 독서활동에 흥미를 갖도록 하자는 취지다.



창간호 잡지, 육필원 등 전시

책이 다양한 전시의 주제가 된다. 대한민국 유네스코 문화유산 전시가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관에서 열려 종묘, 남한산성, 강화 고인돌, 경주 석굴암 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대한민국 문화유산을 사진으로 보여준다. 국내 잡지 창간호도 전시된다. 가천길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 잡지 창간호로 근대 잡지의 효시인 ‘소년’(1908), 최초의 문학동인지 ‘창조’(1919), 종합잡지를 표방한 ‘개벽’(1922년), 일제강점기 민족문화의 명맥을 이어온 ‘한글’(1927년) 등 100여 점이다. 장소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로비다.

육필원고 60점과 관련도서를 모은 한국현대문학 문학육필전도 열린다. 한국현대문학을 대표하는 박종화, 박두진, 서정주 등의 문인과 ‘토지’부터 ‘영자의 전성시대’까지 화제작 중심의 육필 원고가 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시민들을 맞는다. ‘손안愛書’ 사진전은 일상생활 속의 독서 모습, 책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담긴 사진 30여 점이 전시된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에서 볼 수 있다.

손때 묻은 중고 도서를 물물교환하거나 판매하는 북마켓도 운영된다.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 광장에서 가족 단위 중고 책과 소장 물건 판매자 100팀이 참여한다.

테마콘서트, 애장도서 경매 이벤트

영상으로 책을 홍보하는 ‘북 트레일러’ 공모전은 책에 대한 시민들의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는 행사다. 주제는 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활용해 출판자가 자유롭게 영상을 기획하고 만들면 된다. 영상 길이는 1~3분 내외로 형식이나 장비의 제한이 없다.

‘근대로 떠나는 시간여행 in 인천’ 북 콘서트는 개항도시 인천에 첫 선을 보였던 문물을 소재로 하고 있다. 건축, 문학, 커피가 이야기의 중심이다. 9월 17일에는 건축을 소재로 ‘청춘남녀, 백 년 전 세상을 탐하다’, 18일 소설가 김탁환의 작품 ‘뱅크에 나타난 문학, 19일 커피 마니아인 서필훈 작가의 ‘우리가 몰랐던 커피 이야기’ 등을 주제로 독특한 테마 콘서트를 펼친다. 인천아트플랫폼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린다.

보석보다, 골동품보다, 미술작품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책을 경매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애장도서경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콘서트와 함께 진행된다. 개막식 때 내·외빈, 북 콘서트 작가, 각종 공연자에게 사전에 받은 애장도서를 즉석에서 경매한다. 경매 수익은 폐막행사 시 사랑의 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책 5권을 기증하면 신간 1권으로 교환하는 기증도서 물물교환도 이뤄진다. 당일 선착순 100명에 한하며 기증도서는 관내 복지관에 전달된다. 독서대전 기간 동안 체험 및 전시부스를 참관하고 스탬프 5개를 찍어오는 시민들에게는 시화엽서 5장과 우표 1장을 제공한다. 손편지가 사라져가는 요즘 사연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 대한민국 독서대전 행사일정

구분	특설무대			국제회의장			중앙전시실		
시간	9/18	9/19	9/20	9/18	9/19	9/20	9/18	9/19	9/20
10:00~11:00		독서캠프 (유아)	백일장 (초·중등부)	학술 콘퍼런스 (한국언론 학회)	독서동아리 한마당 (한국출판 문화산업진흥원)	독서 토론회 (중등)			인천작가와의 대화
11:00~12:00									
13:00~14:00									
14:00~15:00	북콘서트 (이하람)	청소년 동아리공연	청소년 동아리공연				인천재발견 집담회	책읽어주는 엄마	책읽어주는 엄마
15:00~16:00									
16:00~17:00									
17:00~18:00		영화상영	폐막행사						
18:00~20:00	개막식 및 축하공연	문화공연 (황금토끼)							
전시장	1.미추홀전시실 : 유네스코문화유산(유네스코인천협회) 2.예술정보실 : 한국옥필문학(인천문화재단) 3.중앙로비 : 국내창간잡지(가천길재단) 4.중앙전시실 : 손안앓(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특별행사> 1.근대로 떠나는 시간여행 in 인천 (한국근대문학관) 2.북트레일러 공모전 (한국독서교육학회)		
광장	체험/홍보부스 : 인천작가, 독서단체, 도서관체험, 출판사, 북마켓 등								

※ 행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 9월 18일(금)~20일(일)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일원

이 가족
즐거움의
팔 할은 ‘독서’



‘아빠는 추리소설, 엄마는 에세이집, 큰딸은 자기계발서, 둘째는 현대소설.’ 이번 대한민국독서대전에 참여하는 장우현 씨 가족의 책 읽기 취향은 제각각이다. 읽고 싶은 책은 다르지만 책을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은 하나다.

엄마 박태연(45) 씨는 독서에 관심이 많아 자녀들이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주었다. 아이들이 책을 가져오는 대로 다 읽어주었고, 동화 속 주인공을 놓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감수성을 돌봐 주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 이해력이 좋고 언어발달이 빨랐다.

대학생인 큰딸 지연(19) 양은 “초등학교 시절 도서관에 자주 가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어린 나이였지만 책을 통해서 세상을 간접적으로 알았고 지혜를 배웠다”고 말한다.

장 양은 최근 베스트셀러에 오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고 있다. 반복해 읽으면서, 생각을 바꾸면 조직이나 집단생활에서 오는 외로움과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고등학생인 둘째 딸 수연(16) 양은 독서광으로 불릴 정도로 책을 좋아한다. 중학교 때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었고 교내외

독후감 상을 여러 번 받았다. 방대한 독서량 덕분에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국어공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수연 양은 장래 작가가 되고 싶다. 소설을 읽으면서 결말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때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새롭게 써 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아오른다. 중학교 시절 친구 다섯명과 해외여행을 다녀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엄마 나 갔다 올게’라는 책을 발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수연 양은 현재 ‘몬더씨의 실천하는 하루’라는 책을 읽고 있다.

아버지 장우현(45) 씨도 책을 많이 읽는 아빠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육아는 무관심한 채 혼자서 책만 읽어 아내한테 핀잔도 많이 들었다. 둘째 딸은 아빠가 책을 읽고 있으면 자연스레 옆에서 책을 보곤 한다. 장 씨는 자기계발서 ‘와칭(신이 부리는 요술)’을 읽으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장 씨 가족은 스마트폰이나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선호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을 여러 번 읽을 수도 있고 소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빠는 좋은 책이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키운다고 믿고 있다. 부모,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이 가족의 독서 모습이 한껏 부러워진다.

인천석금, 점자로 다시 태어나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유창호 자유사진가

책 발간 60주년을 맞아 인천 뿌리 알기 일환

개항부터 1950년대 초까지의 인천을 옛날 이야기하듯 구수하게 엮은 책 '인천석금(仁川昔今)' 고일(高逸) 선생이 쓴 이 책은 인천의 향토사를 공부하거나 인천의 뿌리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인천의 명저 중 명저다. 인천영화관, 옛 인천의 부자, 향토 술꾼들, 다방, 요정, 시장 이야기까지 지금도 인천에 관한 글을 쓸 때 필수적으로 인용해야 할 것이 많이 담겨있다.

이렇게 귀한 인천의 책 '인천석금'이 점자로 제작됐다. 일반 베스트셀러 도서도 아닌 원조 향토자료가 점자로 제작된 사례는 흔치 않아 정보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석금 점자책은 화도진도서관에서 제작했다. 올해 인천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2015 책의 수도이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로 책과 문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한다. 더욱이 올해는 이 책이 발간된 지 60년, 고일 선생 타계 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화도진도서관이 인천석금을 점자로 제작하게 된 것은 도서관이 갖추고 있는 인프라가 큰 역할을 했다. 1만 권 가까이 소장된 인천 향토자료를 활용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 제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인천석금은 점자의 특성상 상·하 2권으로 60질을 발행했고, CD로도 만들었다. CD는 100장이 제작되어 인천해광학교, 송암점자도서관 등 시각장애인 관련학교, 단체 및 박물관 등에 배포된다. 점자 인천석금의 기획 및 제작은 모두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인천의 3대 명저(名著) 모두 점자로 제작

화도진도서관은 향토자료를 점자책으로 제작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인천석금 외에도 인천의 향토사학자 최성연 선생의 '개항과 양관역정'도 점자책으로 제작한다. 이 책은 현재 낭독 작업을 하고 있으며 낭독 편집이 끝나면 입력 작업을 진행한다. 개항과 양관역정은 인천 개항장을 중심으로 근대 서양의 건물, 즉 양관들의 역사적 의미, 규모, 건축과정, 내력, 일화 등을 기술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관심



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개항과 양관역정 이후에는 신태범 박사의 '인천 한세기'도 작업에 들어간다. '인천 한세기'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인천의 풍물과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세세한 역사적 사실들을 담고 있어 인천의 근대문화와 생활사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해준다. 이 외에도 인천시립박물관이 발간한 어린이를 위한 향토자료인 '구름나무와 친구들'도 점자책으로 제작할 예

정이다. 녹음도서인 CD는 내용을 읽어주며 그림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 아이들을 상상의 세계로 이끈다. 이 책은 옛날 옛적 인천의 시조설화를 재미있게 엮었다.

화도진도서관은 점자책 제작 사업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공공도서관이 해야 할 역할과 책무라고 여기고 있다. 사회적 약자나 정보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진작 시작했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인천의 뿌리를 아는 소중한 기회 되길

윤명진 화도진도서관 관장은 도서관의 향토자료를 점자책으로 제작하는 일을 올해 도서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의 향토자료를 정보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게 하루빨리 점자로 제작해 인천을 이해하고 인천의 뿌리를 알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인천석금은 인천의 근현대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쓴 책이기에 시각장애인들도 관심을 갖고 읽고 들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관장은 인천석금 점자책과 녹음도서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도 인천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석금'의 저자 고일 선생

'인천석금'의 저자 고일(高逸, 1903~1975) 선생은 1903년 5월 6일 서울 마포구에서 출생했다. 인천으로 이주한 이래 신한회운동을 위해 만주 하얼빈으로 6년간 망명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평생 인천의 청빈한 언론인, 일제에 항거한 사회운동가로 살았다. 인천석금은 1954년부터 1년 동안 '주간인천'이라는 신문에 게재된 그의 칼럼을 모은 것이다. 인천석금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소재들을 다뤄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개항 초부터 1950년대까지 인천에서 있었던 다방, 요정, 주막, 극장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었다. 선생은 해방 후 인천시립도서관장을 역임했고, 경기도 문화상 언론 부문 초대 수상자이기도 하다. 경기일보에 '인천사'를 연재하고, 1956년부터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위촉된 후 노년에는 향토 언론계의 원로로 활동했다. '인천상고사(仁川上古史)'와 '인물사(人物史)'를 구상하다 건강이 악화되어 인천 동구 화수동(현 화도진 담장 아래) 자택에서 72세로 일생을 마쳤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Old



‘새것’과 ‘옛것’ 찾아 떠나는, 여행의 멋

나지막한 집이 서로를 기댄 좁다란 골목, 그 안에서 어깨를 부딪치며 마주치는 사람들. 진정한 여행의 맛을 아는 여행자라면, 이국땅의 오래된 풍경을 놓치지 않는다. 인천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도시다. 화려하고 현대적인 이면에 우리나라 개화기와 근대화를 이끌어 온 역사가 묵묵히 흐른다. 인천의 ‘새것’과 ‘옛것’을 찾아 떠나는 길, 수십 년 된 시장 골목, 110여 년 역사가 흐르는 개항장, 하이라이즈 빌딩숲을 품은 미래도시, 그 어디든 마음 가는 곳에 오래도록 머무르면 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김상덕 자유사진가

& New





맛 Taste

송도국제도시 커널워크

물길 따라, 보고 먹고 마시기

총 길이 750미터의 물길을 따라, 삶의 여유와 즐거움이 흐른다.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유럽형 쇼핑 스트리트인 'NC 큐브 커널워크'는, 커널워크(Canal Walk)라는 이름처럼 걷는 길 따라 수로가 유유히 흐른다. 그 길 따라 걷다, 마음에 드는 가게에 들어가 보고 먹고 마시는 것은 인천을 로맨틱하게 즐기는 한 방법이다.

NC 큐브는 테마별로 봄·여름·가을·겨울 네 블록으로 이뤄져 있다. 그 가운데 흐르는 물길을 따라 패션 숍, 레스토랑, 카페 등 특색 있는 매장 340여 개가 줄지어 있다. 우뚝 솟은 고풍스러운 시계탑,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유럽식 건물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제대로 낸다. 마치 유럽의 어느 거리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하다.

유럽의 감성을 담은 노천카페와 브런치 카페도 곳곳에 있다. 샐러드 바로 잘 알려진 '애슬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곳에 브런치 카페를 열었다. 바나나 외플 플래터가 인기 메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아메리칸 외플에 초콜릿과 생크림이 듬뿍 얹어져 입안에 행복을 불어넣는다. 프렌치토스트 플래터는 토스트, 베이컨, 샐러드, 프렌치프라이가 접시 한가득 담긴다. 여기에 커피까지 곁들여 우아하게 브런치를 즐기려면 파리자영이 부럽지 않다.

거리에는 쇼핑 외에도 다양한 즐거움이 넘친다. 길을 따라 갖가지 형상

의 조각상이 시선을 붙잡고, 시간마다 문화예술 공연이 열려 낭만을 무르익게 한다. 여행지의 하루를 즐기느라 출출해진 배는 우동 집 '켄로쿠'에서 채운다. '제대로' 맛을 낸 일본 규슈 지방의 정통 우동을 맛볼 수 있다. 지도리 우동은 고등어와 가다랑어를 진하게 끓인 육수에 쫄깃한 토종닭을 얹어 낸다. 후루룩 한 그릇 들이켜면, 알싸하게 살아있는 불 맛이 입안에 꽉 차게 번진다. 식사 후에는 한국식 디저트로 마무리한다. '경성팔집 옥루몽'은 전통식 팔빙수 전문점이다. 가마솥에서 뭉근하게 오래도록 삶은 팔과 새하얀 얼음이 유리그릇에 소복이 담겨 나온다. 부드러운 팔과 곱디고운 얼음 결이 입안에 닿자마자 사르르 녹는다.

여행 메모 주말과 공휴일에는 건물 사이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그 중간중간에 문화예술 공연과 베품시장 등이 열린다. 가까이에 인천의 명소 송도센트럴공원이 있다.

위치 연수구 아트센터로 87

가는 길 인근에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이 있다. 4번 출구에서 나와 600m 정도 걷는다.

문의 NC 큐브, 커널워크점 723-6300, 애슬리(여름 동 102호) 1577-1259, 켄로쿠 우동(여름 동 113호) 428-6060, 옥루몽(가을 동 152호) 834-1840



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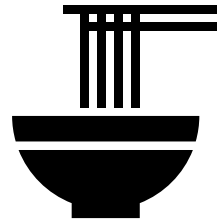
Old

신포국제시장

전통시장 테이스티 로드

닭강정, 찐빵, 순대, 쫄면, 공갈빵... 신포시장에 가면 무엇을 먹을까,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맛. 온 세상에 입맛 당기는 먹거리 천지지만, 신포시장에는 후각을 자극하는 것으로 시작해 여행의 기억으로 남을 특별한 한 그릇이 있다.

최근 젊은 중국인 유커(遊客·관광객)들에게 '길거리 한식'이 인기를 끌면서, 신포시장을 찾는 중국인이 부쩍 늘었다. 시장에는 연신 "하오츠(맛있다)"를 외치며 할 맛 집이 발길 닿는 곳마다 있다. 가장 먼저 들려야 할 곳은, 30년 전통의 '신포 닭강정'이다. 윤기 자르르 흐르는 물엿에 매콤한 고추기름 소스를 흥뿍 버무리고, 그 위에 땅콩가루를 살살 뿌린 닭강정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30분 정도 졸을 서는 건 기본이지만, 갓 버무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강정을 생각하면 기다림마저 즐겁다. 신포시장은 대한민국 대표 분식 쫄면의 고향이자 '신포우리만두'의 본점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원조 쫄면의 면발은 도통하면서도 부드럽고 쫄깃하다. 양념도 단맛 매운맛 신맛의 삼박자가 딱딱 맞아 구미를 확 당긴다. 신포우리만두는 1971년 송현시장에서 2평 남짓한 분식집 '우리집'으로 출발해, 1977년 신포시장에 터를 잡았다. 현재 프랜차이즈로 발전해 미국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다.



색색이 고운 옷을 입은 오색찐빵은 시선부터 맛있게 사로잡는다. 썩, 단호박 등 천연 재료로 색을 내고 팔이 그득 담겨 있어, 건강에 좋고 맛도 그만이다. 삼대째 이어 온 손맛을 자랑하는 신포순대도 빼놓으면 섭섭하다. 야채 등 각종 재료에 찹쌀을 듬뿍 넣어 통통하게 살 오른 순대에 뽕얇게 우러낸 육수를 들어켜는 맛이란. 이와 함께 '공갈'이 아닌 진짜 맛을 자랑하는 공갈빵, 떡볶이, 튀김 등도 한 입 베어 물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신포시장의 대표 먹거리다.

여행 메모 신포국제시장은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도 있는 '신평통보'를 발행하고 있다. 지원센터 한편에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관이 있다.

위치 중구 우현로 49번길 11-5

가는 길 경인선 동인천역 지하상가 27번 출구로 나온다.

문의 신포시장 www.sinpomarket.com, 772-5812, 신포닭강정 762-5800, 신포 우리만두 신포동점 772-4958, 신포순대 773-5735





1 트라이볼
2 동북아무역센터
3 송도센트럴공원
4 G타워

건축 Building

송도국제도시

하늘과 맞닿은, 미래도시의 스카이라인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에 대한 새로운 각인이다. 이 새롭고 번쩍번쩍한 도시는, 화석빛 공장지대와 오래된 포구에 머물러 있던 인천의 이미지를 단번에 바꾸어버렸다. 중국인들에게는 런닝맨 등 대륙에서 인기가 높은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치렀다. '런닝맨'이 송도국제도시 곳곳을 누빈 후로, 이곳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가고 싶은 한국의 명소'가 됐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외관이 돋보이는 건축물이 많다. 하늘 높이 솟은 '동북아무역타워(NEAT Tower)', '역 셸(易 Shell)' 구조의 '트라이볼(Triple+Bow)', 삼각형 아트리움이 건물 전체를 감싸 안은 'G타워', 태백산맥의 형상을 한 송도컨벤시아가 시선을 잡아챈다. 하나하나 독특한 개성이 살아 있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족족 작품이 된다.

동북아무역센터는 68층, 305m 높이로, 롯데월드타워가 100층을 돌파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과 대우인터내셔널 본사가 있고, 65층 전망대에 오르면 송도국제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트라이볼은 365일 공연과 전시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이다. 하늘, 바다, 땅이 어우러진 인천을 상징하는 동시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영종, 청라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어둠이 내리면 지구에 착륙한 UFO 같은 신

비로운 자태로 오색찬란한 빛을 뿌린다. G타워는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비롯해 GGI 등 국제기구 사무국들이 동지를 튼 '작은 UN 빌딩'이다. 29층에 전망대 하늘정원이, 33층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이 있다.

바빠 움직이던 여행길, 송도센트럴공원에서 잠시 쉬었다 가도 좋다. 이 공원은 바다를 품은 항구 도시라는 인천의 특색을 살려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공원으로 조성했다. 그 안에선 한가로이 거닐거나, 수상택시에 몸을 싣고 유유자적하거나, 수평선을 그저 바라보거나, 어디든 마음 가는 곳에 머무르며 여행의 시간을 깊이 느낄 수 있다.

.....

여행 메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의 명소를 둘러보는 송도미래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스는 컴팩스마트시티→트라이볼→웨스트보트하우스→인천대교전망대→G타워→커널워크→송도센트럴공원→송도컨벤시아→컴팩스마트시티

위치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96(송도동) 송도센트럴공원 가는 길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에서 내린다. 자가용 이용 시 컨벤시아대로 우측 센트럴공원 주차장을 이용한다.

문의 인천문화관광해설사회 cafe.daum.net/inmunkwan, 763-3356, 인천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 721-4415



1 배다리
2 한중문화원
3 인천아트플랫폼



근대역사문화타운·배다리

110여 년 전 창고에서, 오늘의 예술을 만나다

인천은 깊다. 화려하고 현대적인 도시 이면에는 우리나라 개화기를 열고 근대화를 이끌어 온 역사가 묵묵히 흐른다. 중구 개항장 일대에 가면, 시간은 1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역 맞은편, 패루(牌樓)를 지나면 차이나타운이다. 중국인들에게 차이나타운이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않다. 130여 년 전 마너면 이국땅에 뿌리내리면서 형성된 고유한 문화는 본토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중국식 사당 의선당, 우리나라 최초의 화교 학교인 중산학교, 1930년대 지어진 중국식 가옥 등 발길 닿는 곳마다 붉은 물결이 넘실거린다.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을 지나 이르는 일본 거리에는 차이나타운과는 또 다른 이국적인 향기가 물씬 난다. 이 거리는 슬프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를 되돌아보게 한다. 길을 걸으면 근대건축전시관으로 개조한 일본 제1은행, 인천개항박물관으로 탈바꿈한 일본 제1은행, 제58은행 등 당시 금융시설과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 터 등을 만난다. 이처럼 한국에서 중국, 일본까지 나라와 나라를 넘나드는 재미는, 개항의 역사를 품은 인천이기에 누릴 수 있는 여행의 즐거움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은 110여 년 전에 지어진 창고와 공장을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이다. 1890년대에 지어진 시 등록문화재

248호 일본 우선주식회사를 비롯해 1930~40년대에 지어진 13개 건물을 하나로 연결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예술창작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역사 속에서 피어난 예술의 꽃은, 그 향기가 더 깊고 풍부하다.

개항로를 따라 걷다 경인선 다리를 지나면 배다리가 나온다. 배다리는 우리가 간직해야 할 풍경을 아직 붙잡고 있는 고마운 동네다. 옛 인천양조장에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스페이스 빔', 요일마다 주인이 바뀌는 '요일가게' 갤러리 카페 '한점' 사진공간 배다리' 등이 이곳의 명소. 1950~6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한책방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

여행 메모 배다리는 동네 입구에 있는 '배다리 안내소에서 여행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게스트 하우스, 생활 전시관 등을 운영하는 '달이네' 1층에 있다.

가는 길 경인선 동인천역에서 내려 4번 출구로 나와 중앙시장을 지나면 배다리 한책방 골목이 나온다. 근대역사문화타운은 경인선 인천역에서 내린다.

문의 차이나타운 www.ichinatown.or.kr, 인천역 앞 관광안내소 777-1330, 달이네 cafe.naver.com/fullmoonh, 010-9007-3427

쇼핑 Shopping

시내 면세점 '엔타스'·쇼핑몰 '스퀘어 원'

도심 여행하며, 면세점 쇼핑 즐기기

구월동 한가운데 있는 '엔타스'는 인천 최초의 시내 면세점이다. 주변에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백화점과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있어, 밤낮으로 수많은 젊은이가 오가며 거리를 메운다. 최근에는 크루즈를 타고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다. 엔타스가 중국 CTS 하남성 여행사와 제휴를 맺으면서, 지난달에는 이틀에 걸쳐 중국 단체 관광객 800여 명이 이곳 면세점을 찾았다. 엔타스에는 12층에서 15층까지, 층마다 특색 있는 매장이 들어서 있다. 최신 유행의 저렴한 아이템부터 고급 브랜드의 제품까지 선보이며 다양한 쇼핑 욕구를 충족시킨다. 12층에는 패션 브랜드 잡화 매장이 모여 있다. 특히 국내 면세점에서 처음 선보이는 명품 브

랜드 편집숍 '살롱 드 시테(Salon De Cite)'의 인기가 높다. 가방은 시중가보다 15%, 의류는 40~5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14층은 늘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거린다. 20~30대 젊은 층이 좋아하는 한국 화장품을 비



엔타스



스퀘어 원

롯해 전자 제품, 식품 매장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15층에는 최근 외국 브랜드 화장품과 향수 매장이 입점했다.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스퀘어 원(Square 1)'은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먹고 쇼핑하며 즐기는 대형 복합쇼핑몰이다.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웅장하게 뻗은 건물에 레스토랑, 글로벌 브랜드 숍, 멀티플렉스 영화관, 마트 등이 들어서 있다. 외벽이 투명하여 안과 밖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자연광이 비치어 산책하듯 여유롭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또 갤러리, 북 카페, 공연장 등을 갖춘 문화 홀이 있어 한국의 문화생활까지 경험할 수 있다.

여행 메모 엔타스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웹사이트(www.entasdfs.com)에서 기획전과 이벤트 등을 확인한다. 스퀘어원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웹사이트(www.square1.co.kr)에서 이벤트 소식을 체크한다. 위치 엔타스는 남동구 인주대로 593, 스퀘어원은 연수구 청능대로 210 가는 길 엔타스는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2번 출구에서 나와 씨티은행 방향, 스퀘어원은 인천지하철 동춘역 1번 출구에서 나와 50m 거리다.

문의 엔타스 1644-0159 스퀘어원 456-4000



부평지하상가

스마트한 유커들의 '쇼핑 핫 플레이스'

중국인 관광객이 달라지고 있다. 명동 일대 백화점과 면세점을 돌며 돈을 펄펄 쓰던 '콘손'은 이제 옛말이다.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합리적인 젊은 관광객이 늘면서 소비 패턴도 달라지고 있다. 부평 지하상가는 인천은 물론 전국 각지, 외국에서도 원정 쇼핑을 오는 '핫 플레이스'다. 하루 유동인구만 30만 명, 출구 31개, 3만 1천600㎡ 면적에 1천 408개 점포가 거미줄처럼 연결된 거대한 지하 쇼핑 세계. 그 놀라운 규모로, 미국 '월드 레코드 아카데미'로부터 '단일면적 최대 지하상가 점포 수' 부문 세계기록을 인정받기도 했다. 지하상가 안은 그야말로 별천지다.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심을 만큼 거대한 지하 세계에는 쇼핑 욕구를 자극하는 상점이 즐비하다. 개성 강한 스트리트 패션 숍,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갖춘 상점도 눈에 띈다. 상가 중심에는 화장품 가게가 한데 모여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검색하는 여행 관련 키워드 중 하나는 '한국에서 꼭 사야 할 화장품'이다. 한류 스타들이 사용하는 한국 화장품은 그네들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 여행 경비 대부분



을 화장품 쇼핑에 할애할 만큼 한국 화장품을 좋아해, 이곳은 늘 쇼핑을 즐기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인다. 이에 지하상가는 늘 어가는 외국인 쇼핑객의 편의를 돕고자, 외국 관광객 유치 홍보실과 외국어 방송설비를 마련하기도 했다. 상인과 상점, 가게에서 파는 아이템도 한층 젊어졌다. 쇼핑 천국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어진다. '부평 문화의 거리'는 트렌디 세터들도 인정하는 유행의 거리다. 골목골목에 준비하게 늘 어선 상점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또 365일 차 없는 거리로 문화공연이 열려 즐거움이 넘친다. 그래서 거리엔 늘 수많은 사람이 오가며 활기를 뿜어낸다.

여행 메모 부평지하상가는, 부평역지하상가를 비롯해 신부평·부평중앙·부평대아·부평역사 모두 다섯 구역으로 이뤄져 있다. 그 안에는 의류, 잡화, 휴대폰, 전자제품, 화장품 등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위치 부평구 부평대로 지하 15 가는 길 경인선 1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40여 버스 노선이 있어 교통이 편하다. 문의 부평역지하상가 www.bpsm.co.kr, 523-9991

이제, 그 섬엔 독 짓는 할배는 살지 않는다

문갑도는 덕적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다. 덕적도에서 배로 30분이면 닿는 거리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쉬 머물지는 않는다. 평일 덕적군도 일대를 도는 나래호를 타면 문갑도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인천이나 덕적에 나갔다 오는 주민들이다. 굴업도에 백패킹하러 등하리에 짐을 산더미처럼 짊어진 캠핑족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큰 섬에 묻히고 유명세에 가려져 있지만 한때는 새우가 이 섬 풍요로움의 '키워드' 였다. 새우 때문에 독 공장이 두 곳이나 있었고 새우를 실어오고 내보내는 배로 섬은 늘 북적거렸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류재형 자유사진가



새우로 부자섬... 나그네에게 후했던 인심

연평도가 조기 파시로 명성을 떨쳤다면 문갑도는 새우 때문에 한가락 하던 시절이 있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까지 문갑도 주민들을 먹여살린 건 새우였다. 당시 만해도 문갑도와 선갑도 사이, 각홀도 주변에서 새우가 엄청 잡혔다. 새우가 다니는 길목에 범선을 띄워놓고 하루 두 번 밀물 때 새우 그물을 걸어 올리거나 매일 배를 타고 나가 새우를 잡았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터질 정도였고, 집마다 배가 하나씩 있어 나갔다 하면 새우를 가득 싣고 들어왔다. 새우잡이로 부자섬이 되었고 섬에 들어오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밥과 잠자리를 제공할 정도로 인심이 좋았다.

새우는 바로 섬으로 들어와 섬 해변과 한월리해수욕장에 있던 새우젓 저장고로 옮겼고, 찢 후 말려 팔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새우젓을 숙성시키는 저장고가 여럿 있었다. 저장고에 새우를 붓고 소금을 넣은 다음 숙성시켰다. 부두에는 새우젓 배가 많아 정박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독 공장은 새우 때문에 생겼다. 문갑도에 독을 굽는 가마는 두 곳 있었다. 하나는 천주교 공소 밑에, 또 하나는 한월리해수욕장 부근 깃대봉으로 올라가는 산 길목에 있다. 천주교 공소 밑에 있던 가마는 작았지만, 한월리에 있던 가마는 수천 개의 새우젓 독을 한꺼번에 구울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꽤 컸다. 지



1 기와 파편
2 문갑도에서 구운 떡 시루
3 새우젓 독

금은 이글거리는 불꽃의 힘으로 새우젓 독을 만들어내던 가마는 없다. 다만 가마터만 남아 무심한 세월을 대변하듯 나무와 무성한 풀로 뒤덮여 있었다. 독 공장들이 없어진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월리 해변이나 인근 산길에는 항아리 파편이 여기저기 텅굴고 있어 독 공장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몇 날 며칠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나면 새우젓 독이 완성이 됐지. 열이 워낙 세 2~3일은 지나야 열기가 빠졌어. 그러면 동네 아낙들이 가마로 들어가 독을 빼내곤 했어.” 주민 김현기(76) 어르신의 증언이다.

한월리 가마터에서 수천 개 웅기 구워

새우젓을 저장하는 탱크는 한월리 가마터 인근과 해변에 여럿 있었다. 한월리 해수욕장 부근의 저장고는 콘크리트로 만든 네 칸짜리였다. 저장고의 깊이는

사람 키보다 훨씬 높았다. 김현기 어르신의 증언에 의하면 가마에서 독이 나오면 저장고에 있던 새우젓을 한 독씩 담아 아낙들이 머리에 이고 날랐다고 한다. 이곳에서 일했던 여자들의 대부분이 피란민과 주민이었다. 5,60년대만 해도 한월리해수욕장 산기슭에 피란민들이 많이 살았다. 방하나 부엌하나로 지어진 집에서 피란민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민물로 밥을 해먹고 마을일로 품삯을 받으며 살았다. 생태적으로 문갑도는 다른섬과 달리 물이 깊고, 풍부했다. 새우가 많이 잡힐 때는 섬 주민이 1천 명을 넘었다고 한다. 지금은 40여 가구에 주민 60여 명이 살고 있다. 문갑도에서 독 공장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북한 피란민이었다. 그는 당시 인부 10여 명과 독 공장을 운영했다. 독 공장에서는 새우젓 독뿐만 아니라 장

독, 항아리, 시루 등 다양한 그릇을 만들었고 인근 섬에서도 사갔다. 독을 만드는 일은 기술자들만 할 수 있었고, 하루에 50개 이상은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의 독은 물레를 돌려 만드는 수공업 형태였다.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은 당시 독을 만들 때 물레를 돌리면서 흙을 붙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매우 청명했다고 기억했다. 독을 만드는 데 쓰는 흙은 충청남도에서 가져왔다. 문갑도는 독의 고장답게 집집마다 유난히 많은 항아리가 눈에 띈다. 새우젓 독은 대체로 위 지름 30cm, 아래 지름은 24cm, 높이는 50cm 정도가 되는 아래가 좁은 원통 모양의 웅기다. 새우젓은 웅기에 담아 웅기째로 팔려 나갔다. 상인들은 새우젓 독을 쪽지게로 팔러 다녔다. 가까운 데로 나갈 때는

두 독을, 멀리 갈 때는 한 독을 엮었다. 새우젓은 충청도나 인천으로 갖고 나가 쌀, 곡물 등과 바꿔 먹기도 했다. 독 공장은 70년대 문갑도 주변에 새우가 점차 사라지면서 없어졌다. 새우가 잡히지 않게 되자 선주들 중엔 빚을 지는 사람이 생겨났고, 독의 수요도 점점 줄어들었다. 새우로 풍요롭던 섬은 점점 경제가 조그라들었고 사람들은 섬을 떠났다. 김현기 어르신의 기억에 의하면 한월리가마에서 몇 번 웅기가 제대로 구워지지 않았다고 한다. 웅기가 다 파기되었고 이런 일이 있을 후 재산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가마 주민은 섬에서 지내는 삶을 견디지 못하고 섬을 떠났다.



한월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가마터



1950, 60년대 새우를 잡던 범선

돌아온 새우, 문갑의 옛 영광이었으면...

흔하디 흔했던 새우가 잡지기 없어진 것을 두고 설왕설래했다. 어떤 어르신은 60~70년대 경제개발로 산업용 오펜수가 서해바다로 들어오면서 새우가 없어졌다고 믿고 있었다.

문갑도 주민들은 이제 어업을 하지 않는다. 주민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배를 부릴 수가 없다. 주민들은 발농사를 짓거나 정부의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다. 섬 면적은 넓으나 마을을 제외하고는 평지가 없어 농사도 발농사 위주다. 주민들은 주로 감자, 고구마, 고추, 마늘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고 쌀은 덕적도나 육지에서 들여온다.

문갑도에는 네 가지 종교가 공존한다. 감리교, 장로교, 당집, 천주교. 바다로 나간 어부들의 무사귀환을 빌었던 당집부터 60여 년 전 가장 먼저 들어온 감리교인 문갑교회, 20여 년 전 생긴 천주교 문갑공소, 장로교 구원교회가 들어와 이 섬에 터를 잡았다.

문갑도는 해변도 아름답지만 산 정상에 오르면



덕적군도 섬들을 환상적으로 만날 수 있다. 마을에서, 선착장에서, 한월리해수욕장에서 정상인 깃대봉(276m)으로 올라가는 산책코스는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자연식생, 바다풍광, 소나무 군락을 보고 체험하면서 호젓함을 만끽할 수 있다. 산속 숲길은 아늑하면서 완만해 초보자도 무난히 걸을 수 있는 코스다. 276m 최고봉인 깃대봉에 서면 점점이 흩뿌려진 보석 같은 덕적면 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남쪽으로는 선갑도, 지도, 울도, 백아도와 서쪽으로는 선단여, 굴업도 등의 아름다운 섬들이 구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최근 들어 문갑도 주변 바다에서 새우가 다시 잡히고 있다. 신안이나 전라도배들이 이곳에 와서 새우잡이를 할 정도다. 문갑도의 옛 영광을 다시 재현했으면 하는 조심스러운 바람을 가져본다. 한월리에 있는 가마터도 나무와 풀을 걷어내고 새롭게 꾸미면 문갑도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좋은 장소가 될 듯싶다. 용기를 만들고, 굶는 장면을 가마를 통해 시연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문갑의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듯하다. 역사적 자원을 살리는 길이 문갑으로 사람이 모이게 하는 또 다른 길이다.



문갑도가 열린다 ‘자구리 축제’

매년 음력 8월엔 자구리가 든다. 뱃터에서 공갈미끼를 던지면 던지는 족족 달려 올라온다. 줄줄이 사탕. 잡는 사람도 어이가 없고 구경하는 사람도 어이가 없다. 문갑도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초가을의 물고기인 자구리를 축제의 소재로 정했다.

설마 축제가 제대로 될까.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축제위원회를 꾸렸다. 다행히 축제는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면서 성황을 맞고 있다. 올해로 2회째다. 올 문갑도 자구리축제는 9월 12~13일 열린다. 자구리는 가을 전어의 사촌으로 모양은 밴댕이와 비슷한데 맛은 전어맛이며 전어보다 가시가 연하고 맛이 좋다. 문갑도 주민들은 자구리를 잡아 말린 다음 구이로 즐겨 먹는다. 자구리 낚시는 미끼를 쓰지 않고 낚싯대에 바늘을 5,6개씩 달아도 바늘마다 튼실한 자구리들이 낚여 손맛을 톡톡히 느낄 수 있다. 축제 행사로는 낚시 외에도 낚지캐기, 조개잡이, 자구리 목걸이 만들기, 풍등 날리기, 등산로 트래킹 등이 진행된다. 축제 참여는 사전에 약으로 선착순 250명 만 받는다. 문의 자구리축제 준비위원회 010-6669-5959

가는길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고려고속훼리 이용, 인천→덕적도→문갑도
문의 고려고속훼리 1577-2891



from 1899 to 2015

동인천 굴다리에서 채미전까지

‘동인천역’이란 이름이 붙은 지 올해 딱 60년이다. 철길이 깔리고 정거장이 문을 연 후 동인천은 오랫동안 인천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는 듯하지만 110여 년 전에 달려왔던 철마는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린다. 현재 동인천역을 통과하는 열차의 하루 운행 횟수는 상·하행선을 합쳐 458회, 2.3분에 한 번씩 기차가 지나간다. 동인천역을 이용하는 1일 승객 수는 약 4만 명이다. 여전히 많은 인천인이 매일 동인천으로 모이고 스쳐간다. 사람은 가고 건물은 사라져도 지역이 품은 이야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동인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축현역발 금강산 여행

1899년 경인선 개통 당시 현재의 동인천역 이름은 축현역이었다. 축현(紐峴)은 싸리재의 한자 이름이다. 축현역은 지금의 동인천 청과물 시장에 있었다. 승객이 많아지며 구내가 좁아지자 1908년 아예 역을 앞쪽 넓은 공터로 옮겨 버린다. 그곳이 현재의 동인천역 자리다. ‘축현역’이라는 이름이 인천을 대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르기도 어렵다는 여론이 일자 1926년 조선매일신

문사는 역명을 공모했다. ‘상인천역’ ‘동인천역’ ‘인천중앙역’ ‘신인천역’ 등이 후보로 거론되었고, 그중 상인천역이 선정되었다. 광복 후 일본인들이 명명한 역 이름이 싫다고 해서 1948년 상인천역을 축현역으로 환원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역 이름이 어렵다고 하자 1955년 축현역을 동인천역으로 또 바꿨다. 역 이름이 동인천역이 되면서 이 일대는 이때부터 인천을 대표하는 동인천 지역이 된다.



축현역에서는 전국 팔도 유람이 가능했다. 1925년 가을 축현역장의 발기로 4박 5일 금강산 단풍놀이 관광객(탐승단)을 모집했다. 10월 5일 오후 8시 55분 축현역을 출발해 원산에 도착한 후 6일 오전 8시 원산을 떠나 오후 2시 30분 장전역에 도착했다. 자동차로 해금강 입구에 도착해 온정리에서 1박하고 7일 옥류동 구룡폭포 등을 걸어서 둘러보고 8일 만물상을 관람한 후 도정리에서 자동차로 장전역을 경유하여 오후에 원산에 도착했다. 야간열차로 9일 오전 8시 50분 축현역에 도착함으로써 닷새간의 금강산 기행을 마쳤다. 1924년 승강객은 89만5천567명으로, 10년간 3.5배 증가했다. 경성역과 평양역에 이어 조선에서 3위를 점하는 역이었다. 1922년 5월 조선중앙경제회가 주최하는 기차박람회가 축현역에서 열리기도 했다.

인영극장과 인형극장

예나 지금이나 극장이 있는 곳이 한 도시에서 가장 변화한 곳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동인천역 주변에는 많은 극장이 있었다. 별제과(현 대한서림) 건너편에는 인영극장이 있었고, 좀 떨어진 곳에 애관극장(경동)이 있었다. 역 뒤쪽 양키시장 근방에는 미림극장과 오성극장이 있었고, 좀 떨어진 곳에 문화극장(배다리), 인천극장(화평동)이 있었다. 인영(仁映)극장은 1941년 11월 기공식을 한 ‘인천문화영화극장’의 후신이다. 이 극장을 지은 사람은 동산고등학교를 설립한 이흥선 씨다. 현재의 하나은행 자리에 당시 최신키 단층 건물을 짓고 은막을 펼치고 영사기를 돌렸다. 인영극장은 1952년 경매 입찰로 김모 씨에게 넘어갔다. 인천시장은 1962년 위험 건물이라는 이유로 극장 개축 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6.25 전쟁 때 포격으

로 벽에 금이 간 단층 건물을 헐어버리고 2층 건물을 신축해 재개관했다. 1973년 11월 26일 인영극장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2층 건물을 헐고 당시 동인천에서 가장 큰 ‘빌딩’인 6층으로 새로 올렸다. 볼링장(3, 4층)과 탁구장(6층) 등이 들어서면서 늘 젊은이들로 북적거렸다. 그런데 볼링장은 짧은 레인 등 국제 규격에 미달, 공식 경기를 치르지 못했고 오래지 않아 문을 닫았다. 탁구장은 후에 허니문커피숍으로 신장개업했다가 다시 롤러스케이트장이 되었다. 허니문커피숍은 인천 최초로 유니폼을 입은 레지들이 서빙을 했다. 지하에는 허니문고고장이 들어섰다. 길 건너에도 환희고고장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특이하게도 맥주병에 막걸리를 담아 팔았다. 이 고고장 사장 김모 씨의 꿈은 인영극장 같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것. 인영극장이 폐관하자 오매불망 영화관을 갖고 싶었던 고고장 사장은 동인천길병원 맞은편 지금의 수요양원 자리에 ‘인형’극장을 개관한다. ‘인영’에서 이름 한 글자만 바꿔 ‘인형’ 간판을 달았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인현동전자상가는 서울의 세운상가를 빼고는 수도권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 한때 축현초교 담장에는 한 평 남짓한 판자집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상인들은 좌판 위에 광석라디오, 선풍기, 진공관 등 온갖 부속품을 늘어놓고 팔았다. 좌판은 1970년대 후반 학교 앞에 큰길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체되었고, 일부가 양조장으로 사용했던 앞 건물로 입성하면서 인현동 전자상가의 역사를 계속 이어갔다. 인천 각 동네에서 수집된 고물들이 이곳으로 모였다. 전선 하나 나사 하나 허투루 버리는 일이 없었다. 장기





개장 초기의 인천백화점

이식하듯 고장난 물건에서 부속품을 적출해 다시 각각 조립,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은 이곳 솜씨 좋은 전자상가 기술자들의 몫이었다. 가끔 후미진 가게에서는 밀수되거나 미군부대에서 빼돌린 라디오, 다리미, 전기면도기 등이 거래되곤 했다. 어찌다 인근에 사는 양색시손에 전축이나 TV가 들려오곤 했다. 그렇게 이 골목에서는 세상의 모든 전자제품이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돌고 돌았다.

잃어버린 광장과 하늘

지금의 동인천 민자역사(民資驛舍)가 들어서기 전 역 앞은 그야말로 풍광이 시원해서 너머 수도국산의 자태가 그대로 눈에 들어왔다. 역 앞 '광장'에서는 규탄대회, 궐기대회, 환영행사, 기념행사 등 각종 집회가 자주 열렸다. 광장은 약장수들의 마케팅 장소로도 그만이었다. 뜨내기꾼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허접한' 물건을 팔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시선을 끌기 위해 차력 '쏘'나 마술, 그리고 약식 서커스를 하곤 했다. 어릴 적에 동인천역 광장에서 차력 '쏘'를 본 적이 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차력사들이 차돌을 당수로 마구 부수던 장면과 못 박힌 널빤지 위를 맨발로 걷던 장면, 그리고 누운 사람의 배 위에 돌을 놓고 해머로 내려치던 장면 등이다. 차

력사들은 쏘 중간 중간에 '약'을 팔았다. 구경하던 어른들은 히히덕거리며 하나씩 사곤 했다. 광장에서는 종교 집회도 열렸다. 1950년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천기독교연합회는 주야 3회에 걸쳐 기독교대부흥전도회를 개최했다.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게 밤 집회는 축현역 광장에서 진행했다.

'괴물' 민자역사는 동인천을 망쳐버린 장본인이다. 1988년 (주)동인천역쇼핑센터 및 동인천역 민자역사 신축공사를 착공해 이듬해 4월 15일 지하 3층 지상 5층 '인천백화점'이 개점하였다.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생긴 민자역사였다.

1999년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로 이 지역 상권이 위축되었다. IMF 경제 위기까지 겹쳐 인천백화점의 매출이 급감하였다. 결국 2001년 백화점은 폐업했고 패션 전문 쇼핑몰 형태인 '엔조이쇼핑몰'로 업종을 전환하였다. 이때 백화점 건물 4~5층에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TV 경륜장이 들어섰다. 현재는 화상 경쟁장까지 들어오면서 인천시민은 동인천의 '광장'과 '하늘'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마실길 지하상가

동인천은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땅 밑에도 동인천

은 있다.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지하에 사통팔달의 길이 마치 개미굴처럼 뚫려 있다. 1967년 6월 3일 동인천지하도가 개통되었다.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다. 이것은 표면적 이유였고, 실제로는 민방공 대피용 목적이 더 강했다.

이미 동인천에는 동인천지하도에 앞서 1963년도에 뚫린 '역전 지하도'가 있었다. 동인천역(인현동)에서 중앙시장(송현동) 쪽으로 뚫린 지하도다. 경인선 철길 밑을 뚫어 만든 일종의 반(半)지하도로 흔히 '굴다리'라고 불렀다. 현재 인천지역 내에는 총 15개의 지하도상가가 조성돼 있는데 이 굴다리 지하도가 원조인 셈이다.

이 지하도는 우역곡절 끝에 1963년 11월 20일 인천에서 최초로 폭 8m, 길이 70m로 개통되었다. 1899년 경인선 철도가 놓인 이후 64년 만에 동인천의 남과 북이 뚫린 것이다. 처음엔 상가가 들어서지 않아 말 그대로 어두컴컴한 지하도로 였다. 가게가 들어서 시장(지하도 자유시장)으로 등록된 때는 1966년 6월 26일이다. 점포수는 59개였다.

굴다리 상가 개통 이후 동인천은 가히 지하도의 전성시대를 맞는다. 1967년 동인천지하도 이후 1971년 새동인천 지하상가가 연결되었고 1974년 동인천지하상가가 준공되었다. 1977년 용동마루터까지 닿은 중앙로지하상가가 완공된 이후 1980년 인현지하상가, 1983년 신포지하상가가 조성됐다. 올 5월 17일 지하상가 때문에 설치되지 못했던 횡단보도가 역 앞과 답동성당 건너편 신포시장 앞에 등장했다. 약 40년 만에 도로 위에 하얀 줄이 쳐진 것이다.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시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지하도가 계획된 적이 있다. 1970년대 초 인천시는 '동인천 터널공사'를 계획한다. '1970년도 시정백서'를 보면 교통량을 분산하고 소통을 고도화하기 위해 동인천과 하인천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를 2개년 사업으로 계획한다.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없지만, 동인천역 앞에서 응봉산(자유공원)을 관통해 하인천(현 인천역)으로 갈 수 있는 터널을 계획했던 것을 보인다.

이 터널이 개통되면 동인천과 하인천 간의 거리가 현 1.5km에서 0.3km(300m)로 크게 단축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터널 양쪽에 100여 개의 점포를 유치해 지하상가를 조성한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면, 이것은 차량이 통행하는 '터널'이 아니라 사람들이 통행하는 지하도

개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계획이 성사되었다면 산 밑을 관통한,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지하상가가 되었을 것이다.

강시장과 동굴

1930년 공설청과물시장이 지금의 중구 인현동 넓은 공터에 문을 열었다. 현재 동인천역에서 배다리 철교까지 도매 과일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으로 한동안 '채미전거리'라고 불렸다.

1960년대 경 청과물도매시장으로 다시 꼴을 갖춰나가면서 현재의 주차장 자리에 인천원예협동조합 경매공판장이 있었다. 중매인과 도매상인들은 이곳을 '강시장'이라고 불렀다. 한창 때 과일 도매 가게 40여 곳과 제사용품을 파는 건어물 가게 10여 곳이 있었다. 현재는 청과물(과일) 도매 가게 3곳, 건어물 가게 4곳만이 남았다.

인천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종자가 개발된 적이 있다. 청과물시장 인천원예조합 조합장을 했던 이영모 씨가 1970년대 후반 '용현무'를 개발했다. 용현무는 생육이 빨라 도시 근교 열무 재배에 적합하다. 잎은 녹색이며 모양은 절엽으로 열무 맛이 좋고 추대는 중간 정도



김보섭 사진



로 추위에 강한 편이다. 명칭으로 볼 때 용현무는 용현동 지역에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잘 팔릴 때는 전국 중모상에서 봉투에 담아 근으로 달아서 판매했다고 한다.

도심 인현동에 기차길 옆 오두막이 있다. 제대로 보이질 않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곳. 동인천 청과물시장 건너편 빌딩 뒤편에는 '쪽방촌'이 있다. 다닥다닥 붙은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집이 100여 곳 철로를 따라 동인천역에서 배다리철교 가까이 길게 늘어서 있다. 앞쪽 길가에 2, 3층 건물들이 세워져 있고 뒤로는 철도 방음벽이 길게 쳐있어 마치 협곡 안에 마을이 들어앉은 형상이다.

일제강점기 때 동인천역이 화물을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철길 옆에 마루보시(대한통운 전신) 하역창고가 생겼고, 이곳에서 일하는 집꾼들이 하나둘 모여 살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것은 6.25 전쟁이 끝나고서다. 터를 제대로 잡지 못한 피란민들이 후미진 이곳에 판잣집을 짓고 살았다. 10평 남짓이 대부분이고 키봐야 20평 정도다. 정착민 중에는 그 당시 인현동 원예공판장(청과물시장)에서 물건을 팔던 상인들도 있었다. 날품 파는 목수와 굿으로 연명하는 만신

등도 들어와 함께 터를 잡았다. 최근 쪽방촌 골목에 '빛'이 들기 시작했다. 얼마 전부터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집 몇 채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한쪽 골목이 허물어지면서 쪼가리 빗조차 제대로 들지 않아 후미졌던 곳이 속살을 드러냈다. 마침내 재개발의 바람이 기차길 옆 오막살이 인현동 쪽방촌 골목을 휘감고 있다. 집을 내준 어르신들은 어디에 거처를 마련했을까.

동인천역 쪽으로 난 좁은 쪽방촌 골목은 한때 '똥골'이라 불린 사창가였다. 1970~80년대, 낮이고 밤이고 역광장에 아줌마 포주들이 나와 호객 행위를 했다. 사창가의 시작은 1960년대 초쯤으로 보인다. 4.19혁명이 한창이었던 때 이곳에 살면서 내동에 있는 여관에 아가씨를 알선하던 어떤 사람이 아예 자기 집에서 '손님'을 받기 시작하면서 골목에 붉은 등이 켜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후 그 옛날 윗동네 용동 기생집, 니나노방석집 등 유흥가에서 일하던 여자들이 흘러들어 오면서 사창'가'로 변했다.

'여자' 장사가 잘돼 이웃 쪽방촌 골목으로 점점 확장될 조짐이 있었다. 이미 살던 골목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해 '침범'을 막았다. 골목 안 구멍가게를 경계 지점으로 설정했다. 이 가게는 아가씨들에게 물건을 대주거나 돈도 빌려 주면서 그런대로 재미를 봤다. 가게 아줌마는 심지어 원치 않게 낳은 아이를 잠시 맡아서 기르기도 했다. 지금은 '집창촌'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세가 많이 약해졌지만, 아직도 대여섯 집은 밤이 되면 흥등을 걸어 놓는다.

다시 광장

1899년 개통한 경인철도는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지역을 두 동강 냈다. 대한서림이 있는 인현동 쪽과 수도권산으로 향하는 송현동 쪽으로 확연히 갈라났다. 오랫동안 인현동 방면을 흔히 동인천 '앞쪽'이라고 불렀고 송현동 방면을 '뒤쪽'이라고 했다. 이것은 순전히 역 개찰구 방향 때문에 붙은 명칭이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렇게 '뒤편'으로 밀려나 있던 송현동 쪽이 이제는 '앞편'이 되었다. 수도권산에 커다란 성채 같은 대단위 아파트(솔빛마을)가 세워지고 북쪽 개찰구 앞에 넓은 동인천 북광장이 생기면서 100여년 만에 앞뒤가 '확' 뒤바뀐 것이다.

2014년 9월 18일 오후 북광장이 술렁거렸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기원 성화봉송이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방송인 클라라가 코리아나 출신 아버지 이승규 씨와 함께 북광장에 나타나자 행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 찍기에 정신이 없었다. 클라라는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북광장에서 배다리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을 달렸다. 26년 전 88서울올림픽을 개최했을 때는 성화 봉송은 인현동 쪽 광장에서 진행했다. 세상이 바뀌었다.

2015년 9월 중순 발간 '동인천 잇다 있다'

'시청(현 중구청)의 동쪽에 있다' 해서 그 이름을 얻은 동인천(東仁川). 그 영역은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다. 좁게는 기차역과 그 관련 시설이 있는 중구 인현동 일부 정도, 넓게는 용동마루터를 넘어 신포동과 자유공원 그리고 중앙시장과 배다리까지 본다. 더 넓게 보면 제물포역과 인천역 사이를 통째로 동인천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곳은 '한때' 인천의 중심지였다. 그 한때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를 말한다. 배후에 공장과 시장 그리고 거대한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어 큰 길 작은 길 할 것 없이 늘 붐볐다. 기차를 비롯해 거의 모든 시내버스가 통과했기 때문에 외곽의 사람들도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동인천 잇다 있다'는 이 지역의 이야기를 모은 책이다. 역사(歷史)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기차길이 놓인 1899년부터 오늘 2015년까지 동인천이 만들어 낸 서사(敍事)를 엮은 책이다. 이 책에서 동인천의 영역은 남북으로는 용동마루터에서 북광장까지, 동서로는 배다리철

교에서 화평철교까지 설정했다. 책은 일곱 부분으로 나눠 기술했다. 누구나 이곳을 '중심지였다'라고 말했는데도 그동안 지역 연구자나 향토사학자 시선에서 살짝 비켜난 지역이다. 근처의 개항장, 차이나타운, 배다리, 중앙시장 등은 어떤 방식으로든 몇 번씩 정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무슨 연유인지 그 대상이 되지 못했다.

올해는 '동인천역'이란 이름을 얻은 지 60년, 동인천 퇴락의 주요인이라고 '원망' 듣는 인천시청사가 이전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저자(유동현·굿모닝인천 편집장)는 '잇은' 것도 많지만 현재의 '잇는' 것을 얘기하고 앞으로 이어 나갈 이야기를 담았다. 동인천, 잇다 있다 그리고 잇다.



인천, 내가 너를 떠날 수 없는 이유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의 눈에 비친 인천은 어떤 모습일까? 보석 같은 시어(詩語)들로 아름다움을 읊조릴 수 있는 도시일까. 아니면 개발 사업으로 옛 풍경과 생명이 사라져가는 가슴 먹먹한 도시일까?

박일 시인(57·송도고등학교 교사)이 펴낸 '바람의 심장'은 인천의 개발현장과 시인이 마음에 담았던 자연풍경을 시인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표현한 시 72편을 담고 있다. 수록된 시들은 시인이 국어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오랫동안 생각해온 시어와 시구들을 갈고 다듬어 창작한 자식 같은 글들이다. 1991년 첫 시집 '사랑에게' 이후 24년 만의 결실이다.

시 '연수구 연수동'에서는 송도 바다의 풍경을 삶과 죽음의 경계로 묘사한다. "아우성치는 조개와 조그만 어린 게들/ 바구니에 이고 가는 아낙네들"의 풍경은 사라지고, "갯벌을 생매장한 공동 묘지터가 보이고/ 비석처럼 늘어선 고층빌딩만 보인다"며 도시화로 자연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환경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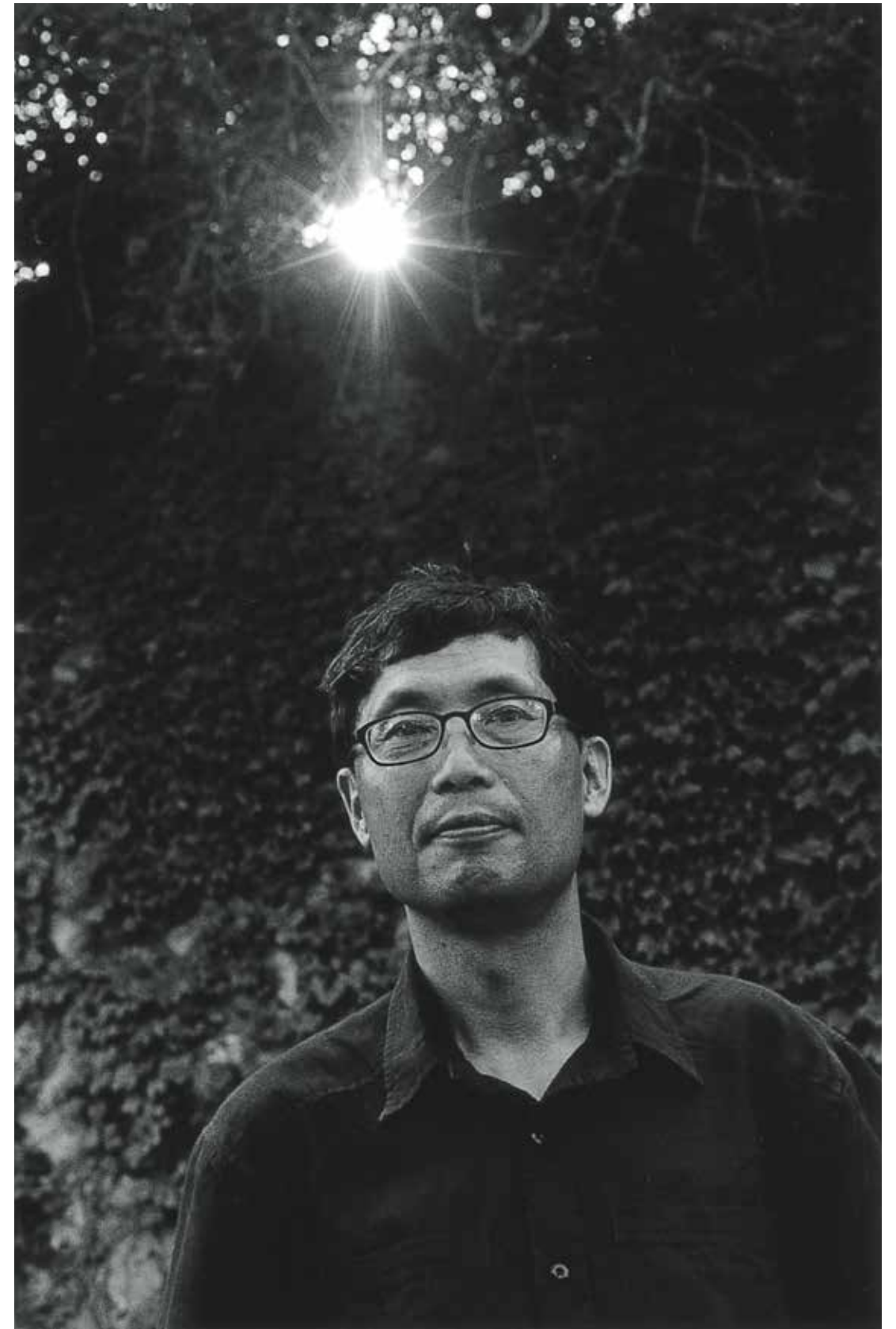
'배다리 책방 안에'는이란 제목의 시에서는 청년이 수없이 드나들며 시를 읽었던 배다리 책방의 추억을 시로 표현했다. 시를 읽으며 만났던 그녀는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고 내재화되었다. "배다리 좁다란 골목길/ 모퉁이 책방에는/ 그녀가 읽어주던/ 시집 한권이 꽃혀 있습니다/ 동인천역을 나오다가 혹시/ 그녀가 좁다란 골목길 그/ 옆길로 와서 시를 읽고 있지 않을까..."

시인은 좋은 시를 쓰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들인다. 그래서 1년에 3~7편 정도 시를 쓴다. 시상(詩想)과 이미지를 찾고자 인천의 곳곳을 누비고 다니다 이곳이다 싶으면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한 뒤 다시 시로 만들어 간다. 시작(詩作) 과정이 녹록지 않아 첫 시집 이후 오랫동안 시집을 못냈다.

시인이자 교사인 그는 문학이야말로 인성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믿는다. 문학을 읽으면 감수성이 풍부해져 인성교육이 저절로 되고, 삶의 여유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다. 시가 타인과 나를 바라보는 창문 역할을 한다는 것. 간혹 수업시간에 시 창작을 하게 되면 공부에 지친 아이들의 눈망울과 얼굴에 평온이 깃드는 것을 느낀다. 문학의 힘이다.

시인은 문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많이 보고 느껴라, 그리고 상상력을 키우는 힘을 기르라"고 조언한다. 상상력을 이미지로 그리는 힘이야말로 시인이 가져야 할 자질이자 소양이다.

시인은 '바람의 심장' 시집 발간을 계기로 시작(詩作) 활동을 더 왕성히 할 생각이다. 그동안 생업과 시간적 제약 때문에 묻어두었던 감성과 창작의 힘을 끄집어내어 인천 문학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 그의 시에는 탁월한 시어 속에 감춰진 역설(逆說)이 있다. 그의 시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시대의 공감으로 승화하길 바라며, 그의 다음 시집을 기다려본다.



기상대동네에서 동화마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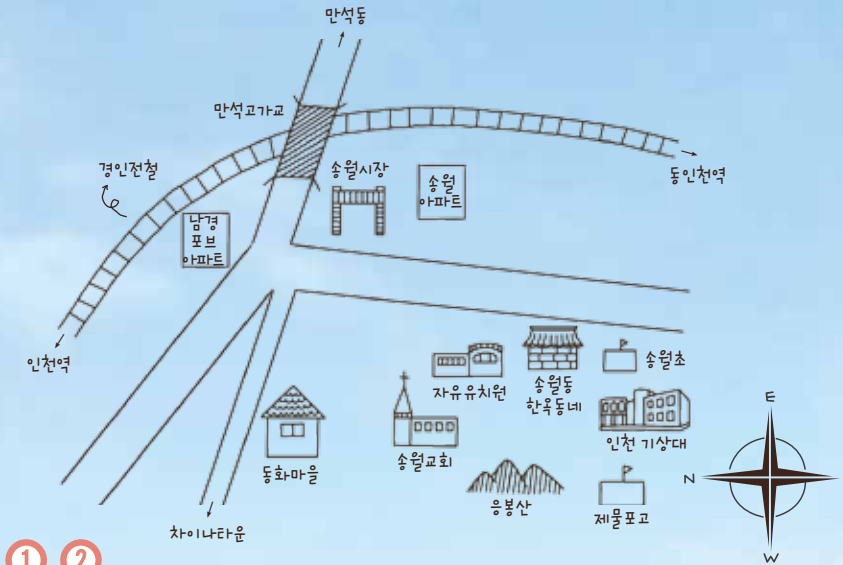
살짝 발만 들어도 풍경은 달리 보인다. 까치발을 하면 보이지 않던 부분이나 지형이 눈에 들어온다. 평지에서 바라보던 거리와 동네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습일까. 위성은 너무 멀고 헬리캠(helicam)이나 드론(drone)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올라갔다. 건물 옥상이나 교회 종탑에 올라 인천을 굽어보았다. 그 정도 높이임에도 인천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이번 호에서는 인천역 주변에 있는 남경포브아파트 옥상에서 송월동 쪽을 바라보았다.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 ① 인천착우소 ② 지진 인천관측소 ③ 자유유치원(파울 바우만 주택) ④ 비누의 시작, 애경 ⑤ 돼지장터(송월시장) ⑥ 동화마을 ⑦ 기와집 골목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까치발을 든 자점 | 송월동 남경포브아파트 (중구 제물량로 317)

경인선 종착역 인천역 가까이에 있는 남경포브는 2006년 9월 건축된 두 동짜리 아파트다. 1906년 6월 각국 외국인 39명이 출자한 인천전기주식회사가 이 아파트 자리에 설립되었다. 독일에서 가져온 100kW 규모의 직류 화력발전기 두 대로 사업을 시작했다. 개업 한 달 만에 천여 개의 전등이 설치되는 등 호황을 누리다 1912년 일한와사전기에 매각되었고 1922년 7월 인천의 발전소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아파트 내에는 인천 전기 발전지라는 표지석이 놓여 있다. 이번호 까치발 자점은 이 아파트의 20층 옥상이다. 한쪽으로 만석동 공장지대와 포구가 눈에 들어오고, 반대편으로는 응봉산의 자태와 그 밑의 송월동이 한눈에 들어온다.



서울에도 송월동(松月洞)이란 동네가 있다.

두 동네 이름은 한자도 같다.

‘소나무에 걸친 달’의 상태가 기상 관측의 중요한 요소였는지
공교롭게 두 지역 모두 일찍부터 기상관측소가 들어앉았다.

만국공원을 품고 있는 응봉산 뒤편에서 격동의 바다를 바라보던

이 동네에는 산 남쪽의 번잡함을 피해 여유롭게 살려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게 거주했다. 그들 집 보파리에 들어온

기상관측, 전기, 비누 등 신문물이 이곳에서 발아하기도 했다.

세월을 못 이겨 뒷방으로 밀려난 노인네 같았던 집과 골목은 얼마 전
알록달록 총천연색으로 분장을 하며 ‘동화마을’이란 이름을 얻었다.



① **인천측우소** : 1905년 1월 1일 응봉산 정상에 관측 장비를 갖춘 인천측우소가 우리나라 최초로 건립되었다. 국내 13개 도시의 측우소는 물론 만주지방 관측소까지 총괄했으며 일본 기상대, 런던 그리니치천문대와 기상 정보를 주고받을 만큼 보유 기술도 뛰어났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아 인천기상대의 상징이었던 원통형 하얀 건물은 지난 2013년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② **지진 인천관측소** : 기상대 정문 옆에는 ‘세계지진관측망 인천관측소’가 있다. 이곳은 한국 최초 지진관측 시발점이다. 1905년 3월 24일 인천관측소 안의 작은 방공호에 기계식 지진계가 설치되었다. 세월이 흘러 1995년에 낡은 장비는 모두 최첨단 디지털 장비로 교체되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이 지진계의 바늘은 백령도 앞바다의 수중음파가 전달되면서 잠시 몸서리를 쳤다.

③ **자유유치원(파울 바우만 주택)** : 기상대 정문 앞으로 내려가면 자유유치원이 나온다. 원래 이 자리에는 독일 상인 파울 바우만의 주택이 있었다. 러일전쟁 직후인 1906년경 우아한 서양식 2층 석조 건축물이 전망 좋은 곳에 세워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을 두 번이나 지낸 사이토 마코토의 별장으로, 광복 후에는 미군이 사용했다. 인천상륙작전 때 건물의 일부가 파괴되었고 1955년에 완전히 철거되었다. 송월초등학교가 그곳에 세워졌다가 후에 건너편으로 이전하였고 그 자리에 북성초교가 다시 개교했다. 북성초교는 송월초교와 통합돼 폐교된 후 그 자리에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이 들어섰다가 현재의 유치원에 자리를 내줬다.



- 1 인천기상대의 옛 모습
- 2 인천기상대 정문 옆 지진관측소
- 3 파울 바우만 주택
- 4 현재의 애경그룹 모태가 된 '미향' 비누
- 5 '돼지장터'라 불린 송월시장
- 6 송월동 동화마을
- 7 1950년대 중반 조성된 기와집 동네



④ **비누의 시작, 애경** : 1912년 송월동에 '애경사(愛敬社)'가 설립되었다. 1954년 제주도 사람 채몽인 씨가 이 공장을 인수해 '애경유지공업(주)'을 창립해 종업원 50명과 함께 비누사업을 시작했다. '미향' 비누만 한 달에 100만 개를 팔아 당시 경인국도를 달리는 차량 대부분이 애경유지 트럭이었다는 일화도 있다. 이것이 오늘날 애경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고 채몽인 씨는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의 남편이다.

⑤ **돼지장터(송월시장)** : 만석동 쪽 기차길 옆에 송월시장이 있다. 1937년 2월 송월공설시장으로 개설되었는데 가축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어 흔히 '돼지장터'라고 불렸다. 말을 키우던 곳이라 하여 흔히 '말간(말 간)'이라 부르기도 했다. 해방 후 만석동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해 한때 꽤 번창했으나 철도 건널목이 없어지고 담으로 막히면서 만석동과 단절이 돼 상권이 급속히 위축되었다. 현재 '동화마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장을 부분적으로 철거 중이다.

⑥ **동화마을** : 송월교회 밑으로 모양이 비슷한 일본식 주택이 많이 남아있다. 동일본방직과 이천전기 사택으로 사용되었던 집들이다. 얼마 전 이 동네 골목이 대대적으로 '분장'을 했다. 가스 밸브함을 이용해 만든 '오즈의 마법사' 양철 나무꾼을 비롯해 헨젤과 그레텔, 빨간 모자 등 이름만으로도 친숙한 동화 속 장면들이 컬러풀하게 벽면을 수놓았다. 동네 이름도 '송월동 동화마을'로 바뀌었다. 일부 시민 단체에서 국적 없는 문화 조성이라 비판이 이는 가운데서도 주말마다 어린이를 둔 가족들이 방문해 동네는 활기가 넘친다.

⑦ **기와집 골목** : 송월동에는 일본식 가옥들뿐만 아니라 오래된 한옥이 많이 남아있다. 송월초등학교 밑으로 가면 인천에서 이제는 보기 드문 기와집 골목이 나온다. 1950년대 중반에 조성된 도시형 한옥촌이다. 건립된 지 반세기가 넘다보니 곳곳이 낡았지만 골목에는 기와집의 우아한 자태와 기풍이 여전히 흐른다.

5 황금.토.끼 미스터 웅 I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무료 ☎420-2051	잭스틱의 '명곡극장'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4시 6천원, 학생 무료 ☎760-3457	6 이은하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1544-7536	8 제16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초대 ☎883-1773	인천시립합창단 브런치 콘서트 '사랑'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1만원 ☎1588-2341	10 상송 카페로의 초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511-6744	11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47회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취임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1588-2341	스테이지 149-연극선집I '여기가 집이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8시 2만원 ☎1588-2341
황금.토.끼 시민과 함께 떠나는 밴드 공연 '밴드야 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054	레이크 루이즈 발매 30주년 기념 공연 2015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Lake Louise'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R석 6만원, S석 5만원, 시아장애석 4만원 ☎500-2000	인천문화재단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뮤직스캔들 'Tango'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2만원 ☎580-1135	12 훈남들의 신상개그쇼 '이리오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7시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1544-3901	황금.토.끼 아! 가을인가 '세계의 민속음악'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051	연극 '슈퍼맨처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2시, 5시 6천원, 학생 무료 ☎760-3457	13 전국중장년예능경연대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원 ☎865-5474	15 키즈클래식 '신나는 음악여행'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5천원 ☎505-5995
16 2015 커피콘서트IX 양상블 시나위 '국악, 다시 태어나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1만원 ☎1588-2341	17 브런치 콘서트 기타리스트 안형수 '로맨틱 앙상블'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브런치 타임, 오전 11시 공연 1만원 ☎580-1163	자전거 탄 풍경의 '더 클래식'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선착순 무료 ☎899-1516~7	18 밴드데아14 '아마도이자람밴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2만원 ☎1588-2341	황금.토.끼 실내악 심향의 '크로스 오버인 국악'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054	19 인천시립무용단 제79회 정기공연 '가을연꽃...秋蓮'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1588-2341	가을을 맞이하는 클래식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초대 ☎888-0808	황금.토.끼 브라스 판타지아I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051
애니메이션 '가부와 메이 이야기' 인천평생학습관 다목적강의실 오후 2시 무료 ☎899-1554	신포니에타 '음악으로 이야기하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4시 6천원, 학생 무료 ☎760-3457	20 인천시립무용단 제79회 정기공연 '가을연꽃...秋蓮'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R석 1만원, S석 7천원 ☎1588-2341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In 音 Festival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1만원 ☎888-0808	생활예술인 음악회 '뮤직 프로슈머'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1천원 ☎580-1135	22 제19회 인천여성가족재단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511-3141	2015 인음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이상미교수 초청 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1만원 ☎888-8770	23 명품클래식시리즈III 백건우 피아노리사이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R석 7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1588-2341

2015 인천재즈앙상블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010-6608-0004	24 제3회 인천시민합창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438-7773	브런치 콘서트 음악으로 만나는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고흐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1만5천원 ☎500-2000	추석맞이 '타악 퍼포먼스'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1만원 ☎580-1163	이영욱 개인전 <집이다> 선광미술관 9월 1~13일	
25 황금.토.끼 미술사 오창현의 매직 토크 콘서트 '꿈의 대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420-2054	광대 재담극 '자라'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5천원 ☎505-5995	30 어린이음악회 '교문 앞 클래식'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30분 무료 ☎580-1166	스크린 콘서트 '총이 말한다 - 국립현대무용단' 청라 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앞(아외) 오후 8시 무료 ☎580-1155		

이 달의
展

~ 9월 7일	김진란 개인전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 9월 7일	장수미 '섬, 바다 그리고 사랑'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9월 2일 ~ 9월 13일	홍과의 만남...여행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9월 4일 ~ 9월 10일	2015년 인천아트페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9월 10일 ~ 9월 24일	이명지, '물' 사진전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9월 10일 ~ 9월 24일	문경록 개인전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9월 11일 ~ 9월 17일	전국광역시 및 제주자치도 사진제 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9월 18일 ~ 9월 20일	2015 대한민국 독서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9월 18일 ~ 9월 24일	제25회 서복레 화백 개인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9월 18일 ~ 9월 24일	박재만 개인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9월 18일 ~ 9월 24일	제19회 한윤기 개인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9월 25일 ~ 10월 1일	제11회 이글스 아트페어 '인생의 숲을 걷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9월 30일 ~ 10월 11일	유리그릇에 담은 사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가운갤러리

1인 가구 500만 시대, '집'의 의미를 다시 묻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기획프로그램 '스테이지 149' 안의 작은 코너, '연극선집(演劇選集)'은 이름 그대로 최고의 연극만을 모았다. 2015년 첫 무대인 9월에 오르는 작품은 언론과 평단의 찬사를 받은 수작 '여기가 집이다'이다. 생동감 넘치는 극적 구조와 텍스트의 풍성함으로 초연 당시 언론 및 평단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2013년 제6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희곡상을 받았다. 고시원의 주인이 새로 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집의 가장으로서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어린 집주인의 파격적인 제안과 전전가는 사라질 현재의 행복에 취해 오히려 삶을 놓아버리는 거주자들을 흥미롭게 그려낸다.

스테이지149 - 연극선집 '여기가 집이다'

일정 9월 11일(금)~12일(토), 11일 오후 2시, 8시 / 12일 오후 3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2만원

신임예술감독 정치용 지휘자와 설레는 만남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제347회 정기연주회는 정치용 신임 예술감독의 취임연주회다. 대한민국 최정상급 지휘자로 평가받는 정치용 지휘자는 뛰어난 바톤 테크닉과 곡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내는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지휘로 단원들을 이끌어가는 품격높은 음악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드보르작의 '사육제 서곡', '교향곡 제7번 d단조' 등을 인천시향과 연주한다.

함께할 협연자는 차세대 첼리스트 김두민이다. 그는 독일 하노버국립음대에서 디플롬 과정과 쾰른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베르비에 음악 페스티벌에서 Prix Apcav상을, 유럽문화재단에서 차세대 예술가상을 수상하며 예술가적 능력을 인정받았다. 드보르작의 대표작이며 첼로 협주곡의 걸작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첼로 협주곡 b단조'를 들려준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47회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취임 연주회'

일정 9월 11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아마 당신이 반할 노래, '아마도이자람밴드'

첫 공연에서 밴드명을 묻는 말에 "아마도 '이자람 밴드'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대답한 것이 그대로 팀명이 된 아마도이자람밴드. 이들의 행보는 각자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활동하며 지내는 멤버들 덕에 주변의 기대보다 느긋하게 흘러갔지만 찬찬한 발걸음 속에서 일상의 정서를 섬세하게 다룬 곡부터 유쾌하지만 날카로운 시인의 언어에 곡조를 입힌 노래까지 다채로운 빛깔을 가진 음악을 선보였다. 여기에 탁월한 표현력과 담대함을 갖춘 이자람이 보컬을 얹어 대체불가능한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구축했다. 소리꾼이 아닌 포크싱어 이자람의 풍부한 목소리와 오랫동안 이어온 밴드의 조화로운 연주, 그리고 고즈넉한 가을의 정취가 더해져 이 밤, 아마도 당신이 반할 노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밴드데이14. 아마도이자람밴드

일시 9월 18일(금) 오후 8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2만원
문의 1588-2341

피아노의 거장 백건우가 들려주는 러시아인 레퍼토리!

'2015 명품클래식시리즈'의 올해 마지막 무대는 피아노의 거장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이다. 어느새 일흔에 접어든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라흐마니노프와 스크랴빈을 바라보며 러시아인 솔로 레퍼토리 등정에 나선다. 오랫동안 전곡 리사이틀이나 해외 오케스트라의 국내 협연에서 팬들과 만났지만 러시아인 독주 레퍼토리로 한국 팬과 호흡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이번 무대에서는 스크랴빈 24개 전주곡과 라흐마니노프 소나타 1번을 연주한다. 특히, 피아니스트 백건우는 2004년 개관 10주년 기념공연에 올라 인천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을 축하해 주었다. 올해의 무대는 그 후 11년 만의 만남으로 그동안의 세월을 같이한 인천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선사하는 선물 같은 무대다.

명품클래식시리즈III

'백건우 리사이틀'

일정 9월 23일(수) 오후 8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7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혼란한 시대를 가로지른 단 하나의 칼



인천시립무용단 제79회 정기공연 '가을 연꽃...'(秋蓮)

일시 9월 19일(토) 오후 7시 30분
20일(일) 오후 5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문의 인천시립무용단 ☎420-2788
엔티켓 ☎1588-2341

조선의 명장 임경업(林慶業) 장군의 활약상과 그의 비극적 죽음을 춤으로 그린 인천시립무용단의 신작 '가을연꽃...'(추련秋蓮)'이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공연은 지난해 취임한 김윤수 예술감독의 첫 정기공연이면서 시립무용단의 2년만의 신작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한국 창작춤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김윤수 예술감독 특유의 내밀하고 섬세한 표현이 매력적인 '가을연꽃...'(추련秋蓮)은 역사적 내용을 토대로 현대적 기법과 표현주의적 수법이 강조된 안무를 통해 춤이 가진 추상미를 한층 살렸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춤의 특징인 호흡과 은유는 유지하되 역동적 에너지를 가진 동작으로 무대에서 생성되는 감각과 감정을 객석에 강렬하게 전달한다. 이는 한국 창작춤의 유산을 딛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큰 걸음이자 다음 세대의 춤언어를 위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난세 속에서 나라를 위해 일어섰으나 음모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비운의 장수 충민공 임경업과 그의 칼 추련. 작품명인 '가을 연꽃'은 임경업 장군의 보검 추련도의 겸명이자, 군자와 대장부를 상징하는 연꽃이 가을까지 의연하게 기다려 만개한 모습으로 긴 역경을 딛고 마침내 피어난 장수의 의기를 상징한다.

당대에 나라를 넘나들며 보여준 활약상과 의기를 굽히지 않은 강직한 그의 모습을 통해 현대에 필요한 의지 강한 인물상을 제시할 '가을연꽃...'(추련秋蓮). '칼과 신의'를 춤으로 승화시켜 역사에 살아있는 그 깊은 유언의 울림을 현대에 전할 것이다.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을 잊지 마세요~

한낮의 햇살이 부드러워졌다.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에 마음도 편안해진다. 불금과 여유로운 주말 저녁, 가족과 흥겨운 공연을 편안하게 즐겨보면 어떨까?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저녁노을이 예쁘게 물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는 <황금.토.끼>가 관객들의 흥을 돋아준다.

'황금 같은 금요일, 토요일 끼 있는 무대'인 <황금.토.끼>는 즐거운 공연 관람으로 여유롭게 주말을 시작하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열린 무대다.

9월 5일 | 인천시립극단 '미스터 웅II'

시립극단이 고전 옹고집전의 스토리를 각색, 현대적인 감각의 새로운 이야기로 진화시킨 마당극, 넘쳐흐르는 풍자와 아유가 웃음을 터뜨리게 한다.

9월 11일 | 시민과 함께 떠나는 밴드공연 '밴드야 놀자'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그룹사운드 공무원행이 신나는 밴드음악으로 야외공연장을 들썩이게 한다. 풍성한 사운드의 신나는 음악으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화합의 무대를 약속한다.

9월 12일 | 인천시립합창단 '애! 가을인가'

아름다운 하모니로 지역민들에게 든든한 사랑을 받고 있는 시립합창단이 행복한 무대를 마련했다. 다양한 장르와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합창음악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9월 18일 | 실내악 심향의 '크로스 오버 인 국악'

젊은 연주자들과 전통 춤꾼들이 감각적으로 꾸민 전통의 무대가 펼쳐진다. 전통 국악기 연주와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해석, 색다른 리듬과 몸짓으로 관객들을 몰입시킨다.

9월 19일 | 인천시립교향악단 Brass Fantasia II(브라스 판타지아 II)

Fantasia(판타지아)는 프랑스어로 시끌벅적한 잔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화려한 금관 악기의 매력을 뽐내며, 연주자와 참여한 청중 모두 함께 즐기는 잔치 분위기를 연출한다. 프로그램은 무겁지 않은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선정했다.

9월 25일 | 미술사 오창현의 매직 토크 콘서트 '꿈의 대화'

미술사 오창현의 줄거리가 있는 매직 토크 콘서트다.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성장해나가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미술과 함께 재미있게 엮었다. 감동적인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고 뛰어난 미술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무대다.



유정복 시장 공약이행 평가는 '양호'

우리는 유정복 시장의 민선6기 공약 사항인 '5대 가치 18대 정책 131개 과제'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시 자체평가를 거쳐 '공약이행 시민점검단'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 131개의 공약사업 중 완료(이행) 10개 사업(7.7%), 정상 98개 사업(74.8%), 일부추진(부진) 21개 사업(16%), 보류 및 재검토 2개 사업(1.5%)으로 평가됐다. 또 전체 131개의 공약사업에 대한 2015년 말까지의 이행목표율이 49%인 점을 감안할 때 2015년 6월 현재까지 34%를 이행해 '양호'하게 추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공약관리부서의 자체판단에 따른 평가와 평가부서의 심층 분석을 통해 평가가 이뤄졌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공약이행 시민점검단'의 모니터링과 다섯 차례에 걸친 열띤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추진 사업은 103개에서 98개로, 일부추진(부진)은 14개에서 21개로, 보류 및 재검토 4개에서 2개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에서는 이를 적극 수렴해 최종 평가 보고서에 담았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주요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규제개선단 운영으로 핵심규제 완화' 공약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 등



다양한 규제개혁 활동을 실시한 결과 '2014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다.

둘째, '행복한 인천 만들기 조직 구성' 공약으로 경제부시장 체제 구성, 도시관리국 확대 개편, 투자유치단과 재난안전본부 신설해 시민과 한 약속 이행을 위한 준비체제를 갖추게 됐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은 300만 시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처리 방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인천·서울·경기·환경부 등이 4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선제적 조치 협상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책개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정책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시 재정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상당수 공약에 대한 시비 확보가 곤란한 점이 일부공약의 부진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의 최종 목표인 2016년 매립 종료에 대해서는 공약의 변경인지 아닌지 시민·사회단체 등이 답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추진방안 등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구 '사렴도'가 인천 무인도 128개 중 처음으로 환경친화적 유원지로 개발된다. 우리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렴도 유원지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영종도 남단에서 2km 떨어진 사렴도는 7만810㎡ 크기의 작은 섬이지만, 앞으로 18개 객실을 갖춘 펜션, 야외공연장, 해양데크 등 휴양시설과 연회장·레스토랑·전망시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개발과 조화를 위해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은 최소화하고 환경 보전을 위해 기존 숲과 기암지역·백사장은 원형 그대로 보존된다. 총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민간 사업자인 ㈜사렴도유원지가 투자할 예정이며, 2017년 12월까지 유원지 개발을 마치고 관광객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문의 시설계획과 ☎440-1702



무인도, 친환경 유원지로 변신

24시간 가동되는 '재난안전상황실'이 시 재난안전본부에 들어섰다. 재난안전상황실은 119 종합방재센터가 맡던 재난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수도권기상청 등 재난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군·구와 핫라인을 구축해 재난 대응에 나선다.

시는 소방본부와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분리하면서 생길 수 있는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해 소방본부 내 119 종합방재센터와 재난안전본부 간 교차 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시는 앞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합관제형 재난상황실'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관제형 재난상황실은 배수문, 급경사지 등 재해·재난 취약지역에 재난 감시용 CCTV 500여대를 설치하는 한편 교통관제센터 등과 연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문의 시 재난안전본부 ☎440-5732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가동

인천발 KTX 조기 추진 가시화, 2020년 개통 청신호

수도권 남부 500만 시민의 열망, 인천발 KTX 노선의 2020년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다.

우리는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의 '수원·인천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경제성(B/C 1.28)을 확보했다. 인천발 KTX는 민선 6기 인천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 등을 확보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수인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이 완공되는 오는 2017년 이전에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결공사에 착수, 오는 2020년 인천발 KTX를 개통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고시 예정인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인천발 KTX 사업이 반영되도록 해 사업비 3천465억원을 국비로 확보할 방침이다.

문의 시 광역교통정책관 ☎440-3892





NEWS BRIEF

외국인 이용 편리한 위생업소 117곳 선정

우리는 외국인과 타 지역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미용, 목욕 등 공공위생업소 117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소는 위생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2천730개 업소 중 시의 현지 방문평가를 통과한 곳이다. 미용업소는 면적 120㎡ 이상, 목욕업소는 2천㎡ 이상 규모이며 공공위생관리법 준수, 시설환경, 서비스 수준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업종별로는 일반 미용업소 73곳, 피부 미용업소 17곳, 종합 미용업소 3곳, 목욕업 24곳이 선정됐다. 업소명단은 인천투어 홈페이지(itour.visitincheon.org) '뷰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시 위생안전과 ☎440-2794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이달 1일부터 1천원 인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이달 1일부터 소형차 기준 최대 1천원 인하됐다. 통행료는 1일 0시부터 편도·소형차 기준으로 신공항영업소 통과 차량은 7천600원에서 6천600원으로 1천원을 내리고 북인천영업소는 3천700원에서 3천200원으로 500원, 청라영업소는 2천800원에서 2천500원으로 300원 인하됐다. 신공항영업소를 통과하는 중형차의 통행료는 1만3천원에서 1만1천300원으로 1천700원, 대형차는 1만6천800원에서 1만4천600원으로 2천200원 내렸다.

문의 국토부 ☎1599-0001

뷰티산업 더욱 활성화된다



우리는 지난달 5일 인천의 뷰티산업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 뷰티산업 육성 세부 추진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지난 달 7일 뷰티산업 구조고도화사업의 결실인 IBC센터(인천뷰티코스메틱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7층, 전체면적 3천300㎡ 규모로 서구 가좌동 주안산업단지 내에 2016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CGMP(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시설과 물류창고 등 입주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제조시설이 들어선다.

시와 '인천뷰티산업발전협의회'의 참여 기업들은 IBC센터가 제품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해외 바이어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시 경제정책과 ☎440-3273

수인선 역명이 궁금하세요?

내년 2월 말 개통 예정인 수인선(수원~인천) 인천구간의 4개 역명이 최종 확정됐다. 우리는 지난달 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 4개 역명을 통보받았다.

인천구간 4개 역명은 인하대역, 송의역, 신평역, 인천역이다. 인하대역은 인하대 정문 앞에 오는 12월 완공된다. 송의역은 남구 옛 버스터미널, 신평역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인천역은 경인전철 하인천역 주변에 들어선다.

수인선 인천구간이 개통되면 인천역에서 경인선과 환승이 가능하고 오이도역에서 4호선과 환승이 가능하여 서울권 진입이 한결 수월해진다.

문의 시 광역교통정책과 ☎440-3894

우리는 신임 행정·경제 부시장에 전성수(사진 왼쪽), 홍순만(사진 오른쪽) 부시장을 임명했다. 전성수(54) 신임 행정부시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통령실 기획관리실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공무원 노사협력관, 안전행정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고, 주 태국 한국대사관 총 영사를 지냈다. 전 행정부시장의 취임식은 지난달 3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홍순만(59) 신임 경제부시장은 지난달 24일 취임하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임식 행사를 생략하고 내부 행정망에 취임사를 올렸다. 그는 취임사에서 "인천은 비록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한반도의 대표적 미래도시라고 확신 한다"고 강조했다. 홍 경제부시장은 건설교통부 도시교통과장·물류개선 기획단장·철도기획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장·교통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달부터 천연압축가스(CNG) 버스에 연료를 넣을 때 반드시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시는 시 보조금을 받는 준공영제 참여 시내버스 회사 33곳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카드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날 신한카드와 카드결제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연료비를 절감하고 거래·수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인천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연료비는 연간 972억 원으로 총 운송원가의 26.2%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크다.

문의 시 버스정책과 ☎440-3982

우리가 행정자치부가 공모한 '2015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시설조성형 2개와 프로그램형 3개 사업이다. 시설조성형에는 서구 가좌 3동의 '도서관 및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과 부평구 산곡 1동의 '요리의 장'이 선정돼 모두 4천800만 원을 지원받고, 프로그램형에는 남구 문학동 및 부평구 청천동의 '문화 프로그램'과 동구 송현동의 '교육 프로그램'이 선정돼 모두 3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체 사업 발굴 및 기획단계에서부터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문의 시 주거환경정책과 ☎440-3484

우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인천생활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12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A5)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총 2천부를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한국문화와 생활, 출입국, 거주, 교통, 소비경제, 의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천 소개 및 관광정보에 대한 안내가 수록돼 있다.

가이드북은 각 군·구 민원실 및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비치돼 있으며, 인천시 홈페이지에 파일형식(PDF)으로 게재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시 다문화정책과 ☎440-2803

신임 전성수 행정부시장, 홍순만 경제부시장 취임



CNG버스 연료 충전 때 카드결제 의무화

정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인천지역 5개 사업 선정

외국인 위한 '인천생활가이드북' 발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승하며 안전점검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8명은 지난달 6일(목)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운연동까지 총29.2km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을 방문, 인천시청역에서 오류동 주박기지까지 시승하며 2호선에 대한 점검활동을 벌였다.

김금용 위원장 등 시의원들은 '인천1호선은 8량 1편성인 반면 2호선은 2량 1편성으로 차량 수가 적어 승객수송에 문제가 없는지, 무인역사와 무인운전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무인운전 중 차량에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관계자들에게 질의했다. 또한, 개통일정 단축, 지상구간 강설시 운행에 지장여부 등 향후 도시철도2호선 운행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본부와 현장 시운전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은 2량 1편성 3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이용객이 많을 경우 2분 간격 운행으로 운행간격을 조정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무인역사와 무인운전에 따른 열차 고장 등 비상상황과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전요원과 순회요원을 배치,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선·조계자 의원, 우수의정활동 대상

인천광역시의회 김경선 의원(웅진군, 새누리당)과 조계자 의원(작전 1동, 작전 2동, 작전서운동, 새정치연합)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활동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경선 의원은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의 입법·연구 활동이 공로로 인정됐다.

조계자 의원은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활발한 입법·연구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우수의정활동 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에게 본 상을 수여함으로써 의원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2회 째를 맞고 있다.

대한민국 인물대상 지방자치의정대상

박승희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제1부위원장)은 지난 7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인물대상 CEO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사단법인 신세대문화예술교류단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2015 대한민국을 빛낸 영광의 얼굴들'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최용덕 위원장, 청소년 가치관과 직업관 특강

최용덕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달 7일 인천광역시고등학교학생연합 리더십 캠프에 참석해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직업관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매년 여름학기에 개최되는 이 행사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 자치활동 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의 큰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른 리더십 함양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년도 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원 40명이 지난달 4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하는 의정아카데미 시민 의정교실에도 참여했다.

시민 의정교실은 지방의회에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의 신청으로 개최되는 의정체험 프로그램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다. 시민과 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의회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전문 강사의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특별강의, 참여 교사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교육정책과 관련한 대화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교원 40명, 의정아카데미 시민의정 교실 참여



이달 1일 개교한 초등학교 집중 점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1일 개교하는 인천송일초, 인천장서초, 인천만월초를 지난달 24일날 방문하고 25일에는 인천가원초, 인천백석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했다.

송일초등학교는 송도국제업무지구(제3공구), 장서초는 서창지구, 가원초는 가정보금자리의 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해 신설되는 학교이며 만월초와 백석초는 구월지구와 당하지구로 신설 이전되는 학교로, 교육위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시설공사 현황, 학생 수용상의 적정성, 통학로 확보, 학교급식 준비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각 학교 소재지 지역구 시의원인 정창일(송일초), 오흥철(장서초), 신영은(만월초), 김진규(백석초) 의원도 방문에 동참하여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매일 국수 뽑으며 사회봉사 실천

■ 신영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신영은 의원(65)은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중 최다선이다. 3, 4, 5, 7대까지 4선의 관록으로, 시의회 의정 역사의 '산증인'이나 다름없다. 신 의원의 의정활동은 최다선답게 시민을 배려하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활동에 방점이 찍혀있다.

신 의원은 최근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한 점과 사재를 털어 사회공헌을 한 공로가 인정돼 '2015 코리아 파워리더 대상'에서 '광역의회의정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코리아 파워리더 대상은 내외통신, 코리아 뉴스, 다이내믹코리아 주최로 2015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선도한 혁신적인 기업 및 참된 기업가,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 우수 의원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신 의원은 제7대 시의원이 된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안전취약지역을 발로 뛰며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또 2007년부터 사재를 털어 '사단법인 인천복지'를 설립해 노인, 청소년 가장 등에게 장학금과 휠체어, 쌀, 연탄 등을 지원해왔다. 제7대 시의원이 된 지금도 어려운 노인과 청소년들의 급식해결을 위해 직접 세운 국수공장에서 새벽부터 국수 생산에 땀을 흘리고 있다. YMCA가 선정하는 우수의원에도 계속 선정되어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신 의원은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지역구 주민들을 만난다. 시민들의 귀감이 되는 일꾼, 약속을 지키는 부지런한 일꾼을 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개최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역발전정책 홍보 행사인 '2015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가 열립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기간 9월 9일(수)~12일(토), 4일간

장소 인천 송도컨벤시아(야외전시장 포함)

주최 지역발전위원회, 17개 시·도, 14개 중앙부처

참가규모 10만 명 예상

행사주제 희망찬 주민행복시대

• 현 정부 3년 차 정책성과 ⇒ 정책으로 인한 주민 삶의 변화 및 체감형 전시

문의 440-1513

‘2015년도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2015년도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계획을 안내하오니, 미래 대한민국을 대표할 다수의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정인원 100명(고등학생 50명, 대학생 40명, 청년일반 10명)

• 우리시 선정인원 : 고등학생 6명, 대학생 5명, 청년 1명(추천은 2배수)

신청기간 8월 26일(수)~9월 8일(화) 오전 9시~오후 6시

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고등학교 및 국내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 청년일반 부문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문의 440-2174

여성의 광장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여성의 광장에서는 제4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교육기간 10월 5일(월)~12월 19일(토) (3개월)

대상 18세 이상 인천시민, 단, 과목에 따라 성별과 연령이 제한됨

접수기간 9월 16일(수) 오전 9시~10월 16일(금) 오후 6시

(단, 우선 모집 대상은 8월 31일(월)부터 일주일간 방문신청)

신청방법 여성의광장 홈페이지(wp.incheon.go.kr) 인터넷 선착순

교육과목 48과목 60개반

수강료 월 2만원(교재, 재료비 별도)

문의 440-8982

‘사라진 섬, 파묻힌 바다, 태어난 땅’ 전시

컴팩스마트시티는 9월을 맞아 특별 전시 '사라진 섬, 파묻힌 바다, 태어난 땅'과 '마수 예술극장'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컴팩스마트시티 특별전시

• 전시명 : 사라진 섬, 파묻힌 바다, 태어난 땅

• 전시기간 : 8월 25일(화)~11월 29일(일)

• 전시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2층 기획전시홀

• 전시품 : 인천 고지도, 근현대 지도, 항공 사진, 관련 사진 엽서 등

• 부대행사 : 전시 관련 특강 6회 실시(컴팩 인문아카데미와 연계 10월~11월 예정), 도록 제작, 특별전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컴팩 마수 예술극장

• 내용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가족 관람 영화, 공연 프로그램

• 제목 : 라퐁젤(9월)

• 일시 : 9월 23일 오후 7시~

※ 9월 30일은 컴팩스마트시티 휴관일인 관계로 23일 대체 상영합니다.

• 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 관람료 : 무료

• 신청 : 선착순 100명 전화 신청

• 문의 : 850-6030

인천의 꿈을 찾는 도시학교

• 강의일정 : 7월 25일(토)~12월 19일(토) 10시~11시 30분

(총 6회 : 7월 25일 8월 22일 9월 19일, 10월 24일, 11월 28일 12월 19일)

• 강의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교육프로그램 강의실(4층) 및 전시관

• 강의대상 : 초등학교 3~4학년생

• 수강신청 : 이메일(louder00@koreakr) 접수, 선착순 마감(날짜별 모집)

• 접수기간 : 7월 6일(월)부터(매회 20명 이내)

※ 수강 신청 미달 시 추가 모집

• 문의 : 440-4422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학가기’ 대학입시 설명회

인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올해 검정고시로 학업에 복귀하고, 대학 진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일시 9월 16일(수) 오후 3~5시

장소 인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연수실

인원 대학입시에 관심 있는 학업 중단 청소년 및 학부모 30명(선착순)

문의 721-2327

아이와 함께하는 문화교실

부평문화사랑방은 가을을 맞아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문화교실을 마련하고 부모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공따리 오르프'

“엄마와 아이가 함께 공따리 사바라~! 음악으로 나누는 대화, 몸으로 만드는 이야기”

• 일정 : 9월 17일~12월 3일 매주 목요일 10시 30분~11시 30분

• 장소 :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 주민센터 3층)

• 대상 : 4, 5세 유아+엄마(아빠), 10쌍

• 참가비 : 6만원(1쌍×12회)

• 신청일시 : 9월 8일(화) 오전 10시, 선착순 전화신청

• 문의 : 505-5951

사다리 뽀들과 함께하는 유아 연극놀이프로그램 ‘연극 나와라, 똑딱!’

4, 5세 유아가 자유롭게 상상하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진이 진행하는 연극놀이 프로그램

• 일정 : <5세반> 10월 1일~12월 3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5시(10회), <4세반> 10월 7일~11월 4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5회)

• 장소 :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 주민센터 3층)

• 대상 : <5세반> 2011년생 유아 10명, <4세반> 2012년생 유아+엄마(아빠) 8쌍

• 참가비 : <5세반> 10만원(1인×10회), <4세반> 5만원(1쌍×5회)

• 신청일시 : 9월 23일(수) 오전 10시 / 선착순 전화신청

• 문의·신청 : 505-5951

사진공간 배다리, 김호성 사진전

사진공간 배다리에서는 9월 김호성 사진가의 전시를 엽니다.

작가는 구글 어스(Google Earth)의 거리뷰 기능을 통해 뉴욕 이미지를 캡처했고,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뉴욕의 이미지를 현재 상황으로 재구성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제목 김호성 사진전 ‘A Phantom city, New York’

기간 9월 18일~30일

장소 사진공간 배다리

문의 070-4142-0897

2015 인천우수시장 박람회

우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2015 인천우수시장 박람회’를 엽니다. 시장상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초대합니다.

목적 전통시장 특산품을 포함한 우수상품 전시·홍보·판매

기간 9월 9일(수)~12일(토)

장소 송도컨벤시아 야외광장

행사내용

• 전통시장 우수 상품 전시·홍보 및 판매, 먹거리관 운영

• 상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각종 문화행사

전시규모 130여 부스

주요 행사

• 개막식(9월 10일(목) 오후 6시)

• 전시관운영(전시홍보관, 먹거리장터 등)

– 전통시장별 대표상품 전시·판매(야채, 청과, 미곡, 음료, 정육 등)

– 다채로운 먹거리 장터 운영

• 부대행사(공연 및 참여행사)

– 경인방송 라디오 공개방송, 국악한마당, 줄타기공연, 우수시장노래자랑, 인디밴드페스티벌, 청소년댄싱경연대회

문의 567-4075

글로벌 투자자들 송도에 모인다

인천의 개발사업을 포함한 유망 글로벌 투자상품과 전 세계 개발·금융 업계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부동산 투자 마켓 'Cityscape Korea 2015'가 이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명칭 Cityscape Korea 2015

일정 9월 19일(토)~21일(월), 3일간

장소 송도 컨벤시아

주요 프로그램

• 전시회 : 국가별 개발 프로젝트 전시관 운영

• 콘퍼런스, 토론회 : 부동산 개발 투자자 및 전문가 초청 콘퍼런스 및 공개 토론회

• 개발사업 프로젝트 쇼케이스,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자-유치기관 맞춤형 상담 등

전시(행사)규모 20여 개국, 70여 개 업체, 200여 개 프로젝트

참가신청 문의 씨티스케이프 사무국

• 전화 : 02-360-4260~1(4076)

• 이메일 : info@cityscapekorea.co.kr

{ INFO BOX }

주정차 위반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우리는 주정차 고정식 CCTV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고정식 CCTV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

※ 불법 주정차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대상입니다.

※ 이동식 CCTV·인력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대각선, 이중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차량

서비스 대상자 인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 관계없음)

※ 차 1대에 휴대폰 번호 1개만 신청 가능

서비스 지역 인천 관내 고정식 CCTV 단속 지역

제공되는 서비스 단속 경고 문자 발송, 주·정차 단속관련 규정 등 공지 문자

서비스 시행 8월 10일부터 연중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서면신청

• 인터넷 신청

— 서비스 홈페이지(parkingsms.incheon.go.kr)에서 신청

— 인천시청 및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단속문자알림 서비스 배너 클릭 후 신청

• 서면신청 : 시 교통관리과, 각 구청 교통과, 인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 중구, 강화군, 옹진군은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의

•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 032-120

• 각 구청 교통과

제9회 공무원음악대전 개최

음악을 통해 공무원의 예술적 재능계발과 정서함양으로 생동감 넘치는 공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9회 공무원음악대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참가대상 전·현직 공무원

모집부문 5개 부문(가요 개인·단체, 클래식 성악·기악, 국악)

작품접수 9월 10일(목)~9월 24일(목), 15일간

신청방법 우편, 방문

문의 440-2529

‘가재! 박물관으로’ 교육 신청하세요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초등학교 단체 교육프로그램인 ‘가재! 박물관으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상설전시 및 교과연계 체험학습에 관심 있는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내용 인천시립박물관 상설전시 및 교과연계 체험학습

대상 1회당 초등학교 학년별 1개 학급(25명 내외)

일시 9~12월, 화~금요일, 10~12시 중 가능시간

장소 인천시립박물관 전시실 및 해넘이방

교육비 전액 무료(왕복수송차량 및 활동지, 체험재료 무료 제공)

※ 차량은 2학기에 32회 제공되며 인터넷 추천 후 확정

신청일시 9월 8일(화) 오전 9시~9일(수) 오후 6시

신청방법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후 추천시스템에 의해 선정된 학교에 한해 담당자와 일정 협의, 신청서 팩스 접수(440-8871)

문의 440-6739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개최

검단선사박물관은 ‘제6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엽니다. 우리 옛 문화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자격 전국 초등학교생(선착순 500명)

대회기간 9월 1일(화)~29일(화)

※ 대회기간 중 9월 28일(추석연휴)을 제외한 월요일은 휴관일입니다.

대회장소 검단선사박물관 전시실 및 야외전시장

작품분야 그림 그리기(수채, 유채, 콜라주 등 표현 방법 자유)

작품주제 아래 부분 중 택 일

— 검단선사박물관 전시 유물 그리기

— 검단선사박물관에서 있었던 일 그리기

— 선사시대 상상화 그리기

참가신청 대회기간 중 검단선사박물관 날인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 후 당일 학예실로 제출

※ 도화지는 참가 학생 본인에 한해 1인당 1장씩만 배부

참가비 무료(단, 도화지 이외 필기구 및 화구 개별 지참)

문의 440-6797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여’



그땐 그랬지

〈굿모닝인천〉 덕분에 낡은 사진첩을 꺼내 20여 년 전을 추억해 봅니다. 윗집 아랫집 이웃사촌들과 함께 강화도 동막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당시 유치원생이던 꼬맹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얼마나 즐거웠던지,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설성진 남구 매소홀로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잘 있니

38년 전 중학교 1학년 때,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친구들과 추억을 남겼습니다. 사진 속 친구들은 잘 있는지 궁금하네요. 가끔은 다시 되돌아가 보고 싶은 그때 그 시절입니다. ‘잘들 있니? 보고 싶다, 친구야.’

조기숙 연수구 원인재로



우리 때 최고의 테마파크, 수봉공원

1981년 수봉공원. 어릴 적 수봉공원은 지금의 테마파크보다 더 화려하고 짜릿한 아이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촌들과 함께 수봉공원에서 회전목마를 타고 놀던 즐거웠던 한때입니다. 이제, 놀이동산은 없어졌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수현 중구 제물량로



장원

90살 어머니, 사진 속 젊은 시절 모습이 참 곱디곱다

1962년 송도 해수욕장. 지금은 사라진 그곳을 떠올리며 추억합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은 바닷가 바위에 다닥다닥 붙은 띠개비와 굴을 따며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워하셨지요. 바다 향기 따라 온 가족이 웃음꽃을 피우던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그 추억을 되새겨볼 수 있도록 해준, 〈굿모닝인천〉에 고맙습니다.

강정무 부평구 부흥로



보물섬 강화도로 간 수학여행

15년 전, 전교생이 보물섬 강화도를 찾았습니다. 광성보는 조선의 거룩한 기계만큼 우뚝 솟은 웅장함을 자랑하였고, 전등사에서는 민족의 위엄이 사찰 안팎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을 발하는 강화도로 간 길이 남을 수학여행이었습니다.

김민석 전라북도 군산시

“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

옛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그때 그 시절 ‘옛 인천’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보이지 않는 역사, 보이는 역사

글 김학균 시인 인천문화회관 관장



입추(立秋) 지나고 보름, 오늘이 처서, 24절기 중 14번째 ‘키질 하는 어머니 어디계실까’ 좀 안타깝고 애잔한 뜻도 있으니 하늘 구만리를 쳐다보고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가을로 자리 잡는 때, 다시 보름 뒤 백로(白露), 무언가 모르게 좀 슬퍼지는 듯하다. 한 예술인이 이 처서에 이승을 떠나갔다.

지인들과 고인에 대한 이야기 나누며 ‘아, 죽음이 화두가 되는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근년 인천의 예술인이 많이 가셨다. 쳐들고 싶지 않은 잿빛의 ‘죽음’이 회자되는 것은 왜 일까.

나도 모르게 어느 가수의 ‘천개의 바람되어’를 따라 부를 때면 추상 명사인 ‘죽음’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다가온다. 불가에서 생로병사를 인간이 겪는 고통으로 꼽지만 이제 는 여러 과정이 생략된 채 죽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생사(生死) 시종(始終) 유명(幽明)과 같은 이 분법을 허용하지 않는가 보다.

「논어」에서 죽음을 묻는 제자의 질문에 공자는 “삶을 모르면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곧 죽음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제대로 알려면 삶을 이해해야 한다는, 성리학자 정이천의 ‘생과 사는 하나이며 둘이다’라고 한 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죽음에 대한 언명은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 반어적인 표현으로 「논어」에는 죽을 사(死)자가 38회, 날 생(生)자가 16회로 더 많이 인용된 죽음을 볼 수 있다. 형용모순처럼 보일지 몰라도 생과 사를 나누지 않아야 삶과 죽음을 뚜렷이 볼 수 있다는 뜻, 우리가 새겨야 할 일인 것 같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몰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전의 여류 화가 K는 예술이란 “형태가 있는 것은 없는 것

으로 가고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예술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성경, 불경을 읽어보아도 ‘반야심경’ 같은 이야기로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내세우며 작가는 외로워야 한다”고 했다.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작업 속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부여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일이 어찌 외롭지 않고서 가능한 일인가?” 도리어 답을 주문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림을 그리 는 그 모습 이제 기억의 창고에서나 꺼내 볼 일로, 저 강을 건너갔어도 그림을 계속 그리는 모습으로 남으리라. 한 사람이 생으로 시작되어 몰 할 때까지 그 과정은 인생사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역사이기도 하다. 예술의 종자 역할을 하며 또는 여러 분야에서 텃밭을 일구며 고군분투했고 한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하여 온 몸을 던져 역사로 남고자 했던 님네들과의 인연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님네들의 살아온 여적을 그릇에 담아내는 ‘구술채록’을 하며 가치창조에 일조해야 할 것 같다. 사라져 가는 것들을 되돌릴 수 없다면 이제라도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역사에서 보이는 역사로 재탄생하도록….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 해서에서 행서가 나오고 행서에서 초서가 나오는데, 해서는 서 있는 것 같고 행서는 걸어가는 것 같으며 초서는 달리는 것 같으니, 걷고 서지도 못하면서 달리는 사람 아직 없다. - 소동파 전집

소식(소동파, 1036~1101)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으로 대문장가. 시서화에 능한 중국의 대표적 예인의 말 오늘날 너무 빨리 가려는 예술인 많다. 기초도 못 익히며 뛰어가는 사람들을 일러 하고 싶은 말. 예술의 올바른 길이라 할 수 없다.



“조상님 위해 선뎡합니다”

빨래집게에 빨래 대신 생선이 집혔습니다.

꼬들꼬들.

살랑살랑.

가을 하늘 아래 물구나무서서 몸을 말합니다.

그들은 정갈한 몸으로

이번 추석 차례상에 오를 것입니다.

- 중구 송월동에서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